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띠 등 난방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작물 : 한국잔디

무상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사본전에 표기내용을 철저히 사용하십시오. ©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본하지 마십시오. © 여타의 손이 닿는 곳에는 붙여주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두우농민들을 성신합니다.

Gardenin
Gardenin 월간 3월호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4 Gardenin 정원사의 3월 정원관리
파충, 그루터잡기, 가지치기, 뿌리나누기, 증식, 해충과 질병
- 8 학교의 정원문화만들기
생태환경미술반 학생들의 백합동산 정원이야기
- 12 김사용의 정원사의일기
영국 가드너로 경험을 쌓은 정원사의 뒷발정원준비

Gardenin Plants

- 16 Green Colour in the GDN
정원디자인의 기본 색상을 녹색으로 혼합하면 정원의 색은 어떻게 변할까?
- 20 정원 속 보이네
박공영 박사님의 강의 같은 정원 속이야기 배우고 익히면 식물과 가까워집니다.
- 24 특집기사 - 혼합식재란
가든인이 봄을 맞이하여 정원이 아름답도록 정원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 28 연꽃
아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와 예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하나 풀어준다.
- 30 봄의 향기 식물 허브
- 32 Gardenin이 뽑은 봄의 Best 10 Plants 식물
정원에서 키우고 가꾸며 건강한 식물을 마련하는 허브식물의 정보
- 40 춘식구근
봄을 앞마나 손끝이 기다렸는지. 꼭꼭 숨어 기다린 너의 우아한 자태, 오랫동안 손
끝아왔다.
- 42 시금치 / 완완식대표
- 44 이명호의 아생화

Gardenin Culture

- 46 해외 정원여행으로의 초대 2.
세계 top 10대 정원여행지의 소개와 특별한 만남으로 해외 정원방문의 기회를
만들도록 독자에게 제공한다.
- 48 손관화 교수- 프랑스 겨울정원 니스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 52 최지현- 정원의 나라는 어디에서 식물을 구입할까?
외국의 가든 센터의 이용도와 식물의 모든 정보를 얻는 해외의 가든센터
운영방법을 소개.
- 55 세연정 - 김홍렬
- 58 양평, 옛 것이 머무는 정원 - 김복기, 김귀숙 부부 정원사의
정원이야기
- 62 김성숙, 뉴욕 속 정원문화 옛보기 - 정원오픈데이란?
미국의 정원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뉴욕식물원의 정원사가 인터뷰도 취재.
- 66 뉴질랜드 트레킹 속으로 보는 자연공원과 남섬의 식물소개
정수진 정수조경대표
- 72 서수현의 정원으로의 여행
- 75 우정아의 DIY- Shoes Garden

Gardenin Information

- 76 그림이 있는 도자기 "돌"
- 77 영국의 정원디자인 학교소개
- 78 도서소개
- 79 한국정원디자인 협회창립

가든인 정원사의 3월 정원관리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3	4	5
01	관목 & 덩굴정리			
02	가지치기/ 전정작업			
03	퇴비주기			
04	땅뒤집기			
05	춘·추식구간 심고 나누기			
06	농사짓기(채소과일종자발아)			
07	화단관리			
08	원예 업무			
09	정원 도구 수리·유지·보수			
10	점불이끼			
11	조경 경관 디자인			
12	춘식·추식 씨앗 파종			
13	동절기 정원 관리준비			
14	물 베기(잡초제거)			
15	병충해 관리			
16	식물영양 표찰 작업			
17	식재 심기 작업(춘추식)			
18	잔디작업준비(엷장)			
19	토양 분석 및 관리			
20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21	관수 공금			
22	총괄 관리 감독 (정원관리피드백)			
23	작업전 후 사진정리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이달의 정원 관리 작업 리스트

1. 파종준비와 온실의 새싹을 보호 한다..
2. 양파와 감자를 심습니다.
3. 여름에 꽃이 피는 춘식구간을 심습니다.
4. 많이 자란 다년생 덩굴을 자르거나 세웁니다.
5. 화분에 새 비료를 넣어 줍니다.
6. 필요하면 건조할 때 잔디를 깎아준다.
7. 겨울에 화려하였던 총총나무(Cornus)나 버드 나무(Willow)의 가지치기.
8. 잡초는 건조할 수 없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
9. 온실을 개방하고 따뜻한 날에 통풍을 해 줍니다.

정원가꾸기 업무과정



2015년 절기별 정원사의 작업스케줄

절기	MAR 3 정월초비		봄 4 SPRING		MAY 5	
날짜	6~7	21~22	5~6	21~22	5~6	21~22
계절변화						
기후	개구리	밤낮길 비	화창	곡식 비	여름 가운	양기 따뜻
작업	 종목	 육단 개나리 생강나무 산수유	 복숭아꽃 진달래	 신물죽 유채꽃	 아까시아 이빨나무	 아까시아 이빨나무
	 속근 천만국					
	 가우리R 고추잠자리					
	 코레우리R 루비망					
조경수에 피는 꽃	 하늘국화 스텔라 원추리: 5~9월 가우리R: 5~11월 코레우리R: 5~11월 하늘국화: 4~11월					
과일 채소	 숙고	 호박 고구마	 토마토 오이	 수박 토란	 참깨 부추1차	
	 감자 상추	 양파 생강	 버 쪽파			
	 가지 대파1차	 목수수 시금치1차	 부추1차 홍화			
	 가지 고추 호박 토마토 수박 오이 물배추 양파 고구마					
24절기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봄이 오는 계절

봄은 보통 3월 중순에 시작이 되며, 맑은 날이 계속되면 정원에 필요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며, 파종상 준비, 씨앗 심기, 번식하기, 분리심기, 가지치기 및 다듬기 등을 하며 정원사는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꽃

>> 씨뿌리기와 심기

일년생 내한성 식물을 화분에 심거나 온화한 지역이면 야외 뒷밭에 심습니다.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모판에 표식을 하거나 다양한 씨앗의 표식을 세운반 반대로 좀더 자연스런 경관을 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트 피(Sweet pea), 왼쪽 사진)를 이번 달에는 야외에 심을 수 있으며, 가을에 심었던 스위트피를 양지바른 곳으로 옮기거나 온실이면 높은 선반에 올려 낚시 햇빛을 많이 쬌 수 있게 한다. 이쁜 본에는 다년생 허브를 심기에 좋은 시기이며, 제라늄(Geranium)과 아스트란티아(Astrantia) 그리고 앙귀비(Oriental poppies)가 여기에 속한다. 여름에 꽃이 피는 구근을 심을 땐, 흙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배수가 잘되어서 구근이 썩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아네모네(Anemone coronaria)는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여름에 사용 할 연속개화용 각꽃이 꽃인 다년생 델피니움(Delphiniums)이나 일년생 꽃을 준비하여 멋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온실에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난 여름이나 올 초에 준비한 삼수를 화분에 심고, 새로운 식물에게서 많은 삼수를 채집할 수도 있다. 겨울 디스플레이용으로 실내에서 자란 구근은 이제 꽃이 지었을 것이며, 정원 밖에 심어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관리를 한다.



그루다듬기 / 가지치기 / 뿌리나누기



겨울을 난 장식용 그라스와 다년생 식물의 그루다듬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루다듬기를 하며, 모양이 좋고 해도 앞으로 또 새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표면에서부터 꽃을 피우는 헬레보레(Hellebores)나 헬레보루스(Helleborus x hybridus and H. niger)의 오랜 잎을 잘라주어서 꽃이 더 잘 보일 수 있고 잎에 반점이 생기는 병이 안 걸리게 해 줍니다. 온실에서 자란 갈란투스(Galanthus)와 노랑노도바람꽃(winter aconites)의 구근의 뿌리나누기나 심기를 한다. 증식을 하려는 다년생 허브의 가지를 나누어서 공간에 비해 너무 비대해지거나 꽃의 상태가 안 좋거나 모양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잎이 자라기 전에 비비추(Hostas)의 뿌리나누기를 하거나, 꽃이 진 헬레보레나 양초(Primulas)의 뿌리나누기를 한다.



증식

다알리아(Dahlias)를 구근으로부터 증식을 하며, 다용도 비료를 넣은 화분에 심어 줄기가 표면 바로 위에 보이게 한다. 물을 주고 따뜻하고 빛이 많은 곳에 두거나 증식장에 둔다. 다년생 식물은 상단에서 자란 새싹을 잘라서 삼수로 사용하여 증식을 할 수 있다. 7.5~10cm 정도를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삼수로 이용 한다. 뿌리성장 호르몬 파우더를 바른 후 삼수를 심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관리

겨울에 피고 시든 꽃을 잘라 냅니다. 팬지꽃은 잘 돌보면 봄이나 이른 여름까지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나르시스(Narcissus)의 시든 꽃을 잘라 주지만, 잎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해줍니다. 다년생 초본이 잠초에 의해 피해가 없도록 잠초를 제거해 주어야 하며, 심기전에 땅을 뒤집어서 흙의 양분이 고르게 한다. 멀칭전에 잠초를 제거하며 가벼운 흙이면 바로 멀칭을 해야 되지만, 무거운 흙에선 3월 이후에 멀칭을 해야 됩니다. 멀칭은 땅 깊은 곳의 영양분이 없게 해주며, 잠초의 성장을 억제 하고 뿌리의 온도를 유지해 주며 흙의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락기든에서나 화분에서 키우는 구근은 벽돌로 쌓아서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윗부분을 비의 피해로부터 보호 하기가 쉽습니다. 봄에 꽃이피는 고산 식물에게 모래나 자갈과 함께 비료를 주면, 줄기가 안 썩고 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잡초가 제거된 후에 새로 열청을 해 주면 됩니다. 무거운 흙의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많이 섞어 주면 됩니다. 다년생 식물이 많이 자라면 지지대를 이달 말에 해줍니다. 이시기에도 화분식물은 일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흙의 내부가 축축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퇴비를 대신해 새로운 퇴비를 넣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며, 제조사가 지정한 비율로 비료를 섞어줘야 한다. 지지대는 빨리 설치해주는 것이 좋으며, 지지대를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지대 설치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이다. 줄기의 성장이 방해 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지지대를 노끈으로 묶어야 한다. 온화한 지역은 새로 올라오는 싹을 보호 하기 위해서 겨울에 덮어 눈 부직포나 집단을 제거하며, 추운 지역은 서리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리 준비하기

스위트파용 원형 지지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며, 많은 이중 노끈으로 어린 식물의 줄기를 묶어야 한다

해충과 질병 검사

백합(Lilies), 참제비고깔(Delphinium), 비비추(Hosta) 등의 새싹을 지렁이와 달팽이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해줘야 하며, 가을에 심은 스위트피를 쥐나 달팽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헬레보레임의 반점은 오래된 헬레보레임에서 발생을 하며, 오래된 잎을 제거하여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진딧물은 온화한 환경에서 증식이 빠르게 진행 되기 때문에, 발견되면 즉시 손으로 잡습니다. 스위트피 바이러스는 진딧물 같은 수액흡수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쉽기 되기 때문에 진딧물 관찰을 잘 해야 한다. 팬지꽃의 흰 곰팡이와 검은 반점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감염된 잎은 제거하며, 상태가 심각하면 완전히 뽑아냅니다. 썩은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며, 로제트형 고산식물의 죽은 잎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 한다.

수목과 관목

심기와 옮겨 심기

화양목, 관목, 수목 그리고 냉쿨식물을 계속해서 심어 주며, 기둥과 토기 보호대를 나무를 심은 곳에 위치시켜서 뿌리와 나무껍질의 훼손을 방지 한다. 이번 달은 장미를 추운 지역이나 중점도에 심기 가장 좋은 시간이며, 이전에 장미를 심었던 정소를 피해서 장미를 심어, 새로 심은 장미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더 나아가서 이번 달 말에는 지난 가을에 심지 못한 상록형 수목이나 관목을 심을 수 있다.

따뜻한 지방은 상록형 수목이나 관목을 3월 말에 옮기며, 추운 지방은 4월 초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옮겨 심은후 첫 여름을 맞이하는 나무의 도양에 수분이 너무 많거나 딱딱하게 얼어 있는지 확인을 하며, 나무에 물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 뿌리의 잔뿌리를 남기고 굵은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나중에 옮기기도 쉬우며, 수분 흡수도 더 잘 할 수 있다.

영양분 공급

화양목, 관목, 수목 그리고 냉쿨식물에게 균형잡힌 비료를 주며, 땅을 고르기 전에 충분한 물을 주어야 한다. 이는 어리거나 약하거나 손상을 입거나 심하게 가지치기를 한 나무에게 효과적 입니다

가지치기와 실습

일반적인 장미나 자라난 덩굴의 가지치기를 잎이 펼쳐지기 전에 하며, 여름이 나 늦은 여름에 꽃이 피는 관목의 가지치기는 1월과 3월 사이에 한다. 부들레야(Buddleja Davidii), 클란도넨시스총꽃(Caryopteris clandonensis), 나무수국(Hydrangea paniculata), 라비테라(Lavatera), 페로브스키아(Perovskia), 후쿠시아(Fuchsia), 낙엽성 갈색나무수국과(Ceanothus)식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목종인 부들레야, 노랑버들(Salix alba var. vitellina, 왼쪽 사진), 유칼립투스(Eucalyptus gunnii)등은 바삭 가지치기를 하여 크기 조절을 해야 되며, 봄에 꽃이 피는 관목의 가지치기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상록수 관목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월계수(Prunus laurocerasus)나 서양벚나무(Cherry laurel)같은 단단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상록수의 역방향으로 자라는 새순의 가지를 잘라서 역방향으로 가지가 자라지 않게 하며, 살구속(Prunus) 식물인 벚꽃(Ornamental cherries), 자두(Plums), 아몬드(Almonds) 등은 여름 중순 전에 가지치기를 하면 은색잎병에 약해질 수가 있다. 나무가 다 자라는 크기를 감안하여 전체적 공간이 충분하면 굳이 가지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드나무(Salix), 라임(Lime)등의 나무는 잎자리를 쳐서 아래 가지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하며, 담쟁이나 덩굴식물 등은 지지대에 잘 고정을 시켜서 바람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능소화(Campsis)같은 나무는 옆가지를 치는 식물로서 첫 가지에서 나온 2번째 또는 3번째 나온 가지를칩니다. 지난 달에 가지치기를 안 한 늦은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피우는 클레마티스(Clematis)의 가지치기를 하며, 재일 아래쪽 두꺼운 한 쌍의 줄기를 자르고 열청 및 영양분 공급을 한다. 겨울에 꽃이 피는 재스민(Jasmine)은 꽃이 사라지면 가지치기를 한다. 죽거나 훼손된 싹을 잘라내고 새로 난 줄기를 몸통에 묶어주며, 몸통에서 옆으로 나온 싹을 5cm정도로 잘라 주면, 깔끔하게 하고 다음 겨울의 개화를 향상시킵니다. 가지치기 후, 영양분을 주고 뿌리 덮개로 덮어서 가지치기의 결과로 성장이 잘 되게 도와주는 효과를 늘릴 수가 있다(신젠타 광고, 스티제라). 여름에 꽃이 피는 재스민(Jasmine)은 필요한 경우 가지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해야 되며, 한 쌍의 재일 아래부분의 줄기를 잘라내고 몸통 옆으로 나온 가지는 잘라내지 말아야 이번 해에 개화수가 높아 집니다. 너무 많이 자란 냉쿨식물의 정리를 이번 달에 해주어야 한다. 낙엽성 작물에서는 어느 부위가 죽었는지 또는 어느 부위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새싹이 나온 가지가 살아 있는 부위가 됩니다. 인동덩굴(Lonicera), 헤데라(Hedera), 사방으로 뻗은 장미가 여기에 속한다. 만약 나무가 너무 커서 직접 가지치기를 하기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두꺼운 가지의 톱질 시 나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증식



작년에 채집한 속지삼을 쟁기고 화단에 심거나 화분에 심습니다. 휘트(왼쪽 사진)는 냉쿨식물이나 늘어지는 관목의 증식으로 유용하며, 내년 봄까지 뿌리를 내릴 것이며, 건조할 때 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고광나무(Philadelphus), 개나리(Forsythia), 수국(Hydrangea), 안개나무(Cotinus), 인동덩굴(Lonicera)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관리

나무 보호용 기둥이나 끈을 확인 하고, 필요한 곳에 팍 조이거나 풀려 주며, 강한 바람에 의해 뿌리가 들렸으면 땅을 단단히 다져 줍니다. 수목, 관목 그리고 덩굴식물에 씩은 보호용 커버를 동결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확인 하고 잘 보호가 되게 해 줍니다. 어린 나무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며, 가지치기 후 멀칭과 영양분 공급을 해 줍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헤더(Heather)의 꽃이 지면 전지가위로 잘라주어서 늘어지거나 빈 느낌이 나지 않게 해주고, 가을에 거둬들인 나무 종자를 심습니다. 로제트형 식물의 상단 부분에서 늘어지는 가지를 잘라주며, 새로 심은 나무 주위에 보호대를 설치해서 동물이 갇히지 못하게 한다.

해충과 질병 검사

아파 보이는 화양목과 감탕나무(Holly tree)를 점검해서 증상을 파악 한다. 잔나비 결상류가 나무에 더 잘 보이는 시기이며, 나무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식물의 역병(Phytophthora root rot)은 성년 수목과 관목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습한 겨울 기후와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에서 민감한 나무 류의 식물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나무 혹은 종종 낙엽성 수목에서 발견 되며, 세균은 따뜻한 날씨에서 생겨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애벌레, 진딧물, 파리에게서 발생하는 세균은 온화한 계절에 문제가 되며, 손으로 빨리 제거하면, 살충제를 쓰지 않을 수도 됩니다.

잔디

새로운 잔디를 깔 수 있으며, 흙의 상태가 너무 젖거나 얼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판을 덮고 위에서 작업을 해야 흙이 단단해 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새로 잔디를 깔아 다지면 안되며, 뿌리가 안착 될 때까지 몇 주간 주의를 가져야 한다. 새로 잔디는 5cm이하가 되게 깎아주면 되며, 뿌리가 안착된 잔디는 자랄 기미가 보일 때마다 날씨가 좋을 때 깎아줍니다. 새해 처음으로 깎을 때는 0.5cm정도 높게 깎아주며, 잔디씨를 뿌려서 키우려면, 먼저 땅을 고르고 높이를 맞춘 후 단단히 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먼저 땅을 고른다음 안정이 되는 3월 말이나 4월에 씨 뿌리기를 한다. 3월말에 질소 함량이 높은 비료를 주어서 동원을 회복 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한다. 잔디의 가장자리를 낮이나 갈로 반듯하게 잘라내고 곡선의 커브를 자를 때는 모래로 윤곽을 주고 잘라 낟니다. 야생화의 씨앗을 뿌려 화려함을 더한다.

syngenta.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스티제라 영양제

봄의 개화 활착 & 성장
균형잡힌 식물 영양분
경엽처리, 관주처리 가능

탁월한 영양 훌륭한 결과
탁월한 결과를 위한 영양분
더 높은 수확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성분

스티제라는 동물성 골라겐을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한, 유리아미노산과 크고 작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유기질 복합체이다.
(유리아미노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 철소분, 양모니아제 질소, 질소, 유기탄소, 화분, 수분)

기능

저온, 물부족 또는 과염류에 의한 스트레스부터 안정화 저항 조직의 생성으로 세포벽 강화, 화분 수정을 향상.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의 생장 촉진. 질소를 보관하는 천연 저수지와 같은 역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

장점

작물에 쉽게 흡수되는 영양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적은 에너지를 소모
아미노산을 공급해 증으로 엽록소의 합성이 용이
영양생장을 촉진, 발근 촉진시키는 오옥신을 생성
강력하고 조화롭게 뿌리와 줄기, 잎을 발달

문제해결

지렁이토사물이 마르면 빗자루로 쓸어 주며, 이달 말에 따뜻한 날에 새로운 잔디로 흙을 매꿉니다. 두더지 굴은 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덮을 낚서 잡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이다. 붉은곰팡이(Fusarium patch) 또는 눈곰팡이(Snow mould) 그리고 조류(Algae)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불어주거나 빛을 잘 쬐게 하는 것으로 주변의 수목과 관목의 가지치기를 하거나, 음지 식물을 같이 심어주는 것이다.

백합동산의 봄 정원 식물이야기

수도여고 생태환경 미술반
정원이야기 연재 3



붓꽃



붓꽃



송엽국



스트케시아(6월)

이른 봄 정원 흰색과 보라 빛의 붓꽃의 싱그러움은 영국 cottage 정원의 혼합 식재디자인이지만 수도고의 정원은 다년간 식물과 함께한 정원사의 예찰로 건강하고 탐스러우며 구근의 번식과 식물들의 가족을 화려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처럼 서로 간의 특성을 알고 식재한 전문성도 높은 정원이다. 식물의 개화시간을 맞추어 선생님의 카메라 줌으로 보낸 봄의 식물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여학생들의 모습처럼 모두가 싱그러움 모습과 많은 수의 구근도 이른봄 정원의 친구로 꽃 필요하며, 전문 정원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근으로 추식 & 춘식 구근의 식재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는 기본이 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튤립 가을 식재후 봄에 개화를 맞이하며, 조각품의 모습도 아름다운 튤립과 두 마리의 새들이 정원에서 지저귀듯 새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원의 모습



이른봄 가을 심은 추식구근 튤립씨가 올라오는 백합동산 조각품아래 미술반 박현숙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은 정원사로서 장식용그라스 식재하고 계신 모습.



튤립이 진후 6월 큰 알리움 구근이 피고 있는 정원모습



몽료초



팬지



사스타데이지



송바귀



비비추



수련



자주달개비



알리움



초롱꽃



튤립



할미꽃

특집기사 수도여고 정원의
생태일지 관찰주제

관찰일지

수도여고 학생
나는, 가원



봄날 백합동산

“백합 동산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쌀쌀한 날씨지만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우리 수도 여자 고등학교의 자랑거리인 백합 동산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같이 구경해 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파랗고 개울의 물이 얼어있었다. 먼 개울물을 보니 비까지 세로로 추웠던 지난겨울이 생각났다. 얼은 파스칼이 얼음을 뜯어서 새싹이 나올까봐 소름을 돋았다.



전혀 학교의 상징인 백합이 두텁게 흙을 덮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만 안 땅을 비우고 나타나, 생명력의 찬란한 것이 참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흰색이 있어 저 백합 새싹들처럼 그 아름다움에 처 나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싹들이 툭툭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학교의 상징인 백합이 두텁게 흙을 덮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만 안 땅을 비우고 나타나, 생명력의 찬란한 것이 참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흰색이 있어 저 백합 새싹들처럼 그 아름다움에 처 나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싹들이 툭툭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3월 8일 날씨 흐림 (2012년 3월 8일 목요일) (장소: 백합동산)

“추운 겨울을 견디는 방법”

우리 눈에 제일 처음 보이는 식물들 꽃피기 시작했다.

꽃피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생김새에서는 이것을 로제트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길고 키가 작은 꽃피기 시작하고 한두 개 잎이 있을 땐 겹겹으로 쓰러져서 잎을 살려서 살아야겠다는 끈을 걸었습니다. 꽃피는 이따위 겹 겹이 에 무수한 잔털을 가지고 있어서 얼을 배양하기 않아 마지 겨울 고향을 알은 것 같습니다. 여러 꽃피기가 꽃을 피워서 진짜 아름다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 기쁘고 있습니다.



◀ 얼을 보지 못할 새싹이 흙을 덮고 올라와 있습니다. 4~5월이 지나면 흙은 물이 되기 위해 일찍이 쉼을 하는 듯 합니다. 겨울에 딱딱해진 흙과 물이 되기 사이에서 이렇게 밟을 순을 위해 추운 겨울을 버텨 얼을 땅을 덮고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툭툭 새싹은 반쯤 타워처럼 마치 통통하게 살이 찰 듯하게 된 것입니다.



▶ 그 옆에 마른 낙엽을 하얗고 파랗게 된 것이 보입니다. 메마른 낙엽을 사이에 두고 나있는 것은 백합새싹이 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썩은 낙엽을 씹어 씹어주세요.

4월 12일 날씨 맑음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장소: 백합동산)

“풍성한 목련 나무.”



바닥에 커다란 흰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비범한 꽃을 여길려 했을까요?
범인은 너무 목련입니다. 불교에서 나무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로 목련이라고 부릅니다. 목련꽃은 일 년에 단 한번만 꽃 피고 그 후 겨울철 동안은 무성한 잎과 앙상한 가지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특성에 목련은 청순 등 비에는 지니는 세련된 비유이기도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길에서 빛을 받아서 피는 목련 꽃들을 가까이 보았을 때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이 아름답게 목련 나무를 보니 마치 흰 웨딩드레스가 나무에 솟아나기 때문인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련의 꽃은 커다란 꽃잎이 노란 안쪽과 수줍은 갈색과 있는 모습인데, 마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꽃잎의 과민과도 잘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목련이 피는 것을 보고 집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련이 너무 아름답지만, 피는 꽃들이 겨울을 견뎌 주어서 알은 다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철나무에 무슨 일이?”

새 잎이 돋아나지 않아서 사철나무 잎이 푸르게 울퉁불퉁한 현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게 뭐냐 하다가 잎을 살짝 손으로 뜯어 봤는데 흙 아래에는 무척진 흰 거품 같은 것이 들어있었고, 흙을 알 수 없는 노랑과 같은 색깔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잎이 나뭇잎 속에 살다,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흙을 에 모두 벌레가 들어있는 것일까?

흔히 해서 이따위엔 견뎌보았는데, 이 흙은 ‘충명’ 또는 ‘사철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충명 안의 애벌레는 사철나무를 파먹고 출몰합니다. 사철나무를 파먹는 애벌레로 보아, 4월 하순에서 5월 하순이던 날에 흙을 한 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뭇잎 안에서 유충 상태로 수년을 흡수하며 지내다가 가을이 되면 이따위를 흙바닥에 날개 달고 유충이 지니는 흙을 뚫어냅니다. 사철나무를 파먹는 애벌레가 많으면 백리 나뭇잎이 된다고 합니다.



벌레에서 벌레는 한 마리씩을 보면, 약 2mm 정도의 크기의 애벌레가 흙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만 애벌레 잎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 옆에는 흙이 된 사철나무를 파먹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철 나무에서 다시 사철나무에 알을 낳을 텐데, 내년도 사철나무에 파먹을 애벌레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벌레가 해로운데, 이의 해로운 성질이 사철나무와 다른 식물들에게 독이 될까봐 손으로 이따위를 뜯어냈습니다. 사철나무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봄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점점 푸른 물결이 낙엽만 무성하던 갈색 흙바닥을 덮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새싹들이 피어났고, 꽃망울을 맺는 식물도 종종 보입니다. 성급한 꽃들은 벌써 아름다운 자태로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일까요? 잘 자라나는 식물들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아기 비비추”

비비추가 다량파란 이따위를 내리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 마치 흰색이 가득합니다. 너무 백백백하게 있어 좋은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들거나 병든 비비추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철나무가 병충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충명 속엔 사철나무목파리 애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올해에는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를 참고해 가며 정원의 일기를 써 가려한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저 스스로 기상의 변화를 뚜렷이 감지해 나가고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기상변화는 이미 지구온난화로 많이 이야기 되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나 홀수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몇 년 혹은 몇 십년 만에 최고라고 이야기 한다.

온도변화는 식물보다는 동물 특히 작은 곤충들이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한다. 식물을 다루는 지면이니, 식물을 예로 들어야겠지요.

작년 경우 식물의 꽃이 한꺼번에 피고 짧은 봄 이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예상은 이제 누구라도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정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화, 현대화로 자리를 잃어버린 동·식물의 서식처를 회복하는 일은 조경과 원예일을 하는 사람들이 녹색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서 정원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으로 소통하며 녹색의 공간을 늘려 나가는 일일 것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녹색의 공간은 농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정원 일을 배우고 만들어 가꾸시길 기대해 봅니다.

<농가월령가>는 1년 열두달 절서에 따라 농가에서 맞이하는 매월의 할 일을 권하는 권농가사(勸農歌辭)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이르던 조선시대에 세시절후(歲時節候)에 따라 지쳐야할 농가의 실천사항과 풍속 및 예의법절을 들어 달거리로 노래한 월령체(月令體)의 가사이다. 여기에는 영농생활의 실상과 흥취 그리고 자부심과 보람까지 반영하고 있어 흙에서의 삶을 천명으로 여기던 순박한 농민들의 사실적 생활상과 농촌사회에서 통용되어 오던 농가의 토박이말을 전하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도 평가된다. 가사의 작자와 연대는 조선조 광해군(1608~1623) 때의 고상안(高尚顔)이 지었다는 견해와 헌종(1834~1849) 때의 정약용(丁若鏞)의 둘째 아들인 정학유(丁學游) 제작설이……. [한국가사문학 홈페이지(www.gasago.kr)]

3월에는 경칩(驚蟄)과 춘분(春分)이 들어 있는 시기이다.

경칩은 驚(놀랄 경)과 蟄(숨을 칩)으로 겨울잠을 자던 동물(개구리)과 벌레들도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경칩(驚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또한 초목에 물이 오르기 시작 즉 생장하는 절기이다.

시기상으로는 입춘으로부터 세 번째, 음력으로는 2월 절기이며 양력으로는 3월 5~6일경이고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에 있다. 경칩 때는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도 겨울잠에서 깨는 시기로 보리, 밀, 시금치, 우엉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시작한다. 이때 농촌의 봄은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담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는 등 농사가 본격화 됩니다. 이 때에 맞추어 정원에서도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정원 일을 해야 되는 시기를 날짜로 얘기하지 않고 정원사의 무릎이 땅에 닿아도 시리지 않을 때라고 한다. 경칩이 이 시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분(春分)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이다.

추운 북쪽지방에서도 "추위는 춘분까지"라고 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입춘으로부터 네 번째, 음력으로는 2월 중이며, 양력으로는 3월 21일경이고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다. 천문학에서는 태양이 남에서 북으로 천구(天球)의 적도와 황도(黃道)가 만나는 점(춘분점)을 지나가는 3월 21일경을 말한다. 즉 밤과 낮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진 후에도 얼마간은 빛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낮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춘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온다고 한다. 철 이르면 화초는 벌써 춘분에 씨앗뿌리기(파종)을 한다. 또한 화단의 흙을 일구어 얼마 남지 않은 식목일(또는 한식(寒食)을 위하여 씨 뿌릴 준비를 한다.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로 분주해지고 정원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를 정성들여 잘 보내면 한 해의 수확물과 정원이 풍성해집니다. 일 년 중 춘분에서부터 약 20여일이 기온상승이 가장 큰 때이다. 이때는 흙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시기로 일 년 중 농부와 정원사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관상정원 (Ornamental Garden)

구근식물류



Cyclamen coum (시클라멘)



Hepatica sp. (노루귀 종류)



Narcissus 'Jettire' (수선화 원예종)



Galanthus nivalis (설강화 원예종)

낙엽수 아래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Corydalis maculata (점현호색)



Hepatica asiatica (노루귀)



Pseudostellaria setulosa (송개별꽃)



Viola albidia var. chaerophyllioides (남산제비꽃)

텃밭정원(Vegetable Garden)

2월이 되면 텃밭정원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더 늦어지게 되면 일에 밀려서 계획 없이 이것 저것 하다보면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자에게는 텃밭정원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한 번 들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처음에 할 때 어렵더라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준비물1

파종을 위해 준비된 여러 용기들. 사각 모양의 것은 트레이라고 부르며, 둥근 모양의 것은 포트(pot)라고 한다. 씨앗이나 모종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용기를 사용한다. 트레이는 주로 양채소 파종에 이용되며, 많은 양의 파종에 이용된다. 포트는 호박이나 수박 등 씨앗도 크지만 자랄 때의 모종도 큰 채소를 파종한다.



파종 2.

트레이에 파종용토를 넣는다.



파종 3.

새끼손가락 등으로 사각 틀안의 중앙에 구멍을 미리 뚫어 준다.



파종 4.

각각의 구멍에 씨앗을 넣는다.



파종 5.

파종이 끝나면 용토로 덮어준다.



파종 6.

포트에 파종용토를 넣는다.



파종 6-1.

포트를 들어 탁자위에 놓으면서 용토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용토를 넣을 때 뒷부분에 1cm내외의 공간(Water Space)을 남겨 놓는다. 물을 줄때 이 공간에 물이 고여 있다가 화분 아래까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파종 7.

용토에 구멍을 내고, 씨앗을 넣는다.



파종 8.

용토로 덮어 준다.



기록 9.

표찰에 채소 이름과 파종날짜 등을 기록한다.



물주기 10.

충분하게 물을 주면 완성. 파종용 용토는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을 준다.

[2015 우리씨드그룹 교육안내]

정원 맡기지 말고 직접 가꾸어보세요! 내손으로 가꾸는 정원, 배움으로부터 시작!

» 교육과정안내

그린아카데미 : 1학기: 4~6월, 2학기: 9~11월(주 1회 학기당 10~12회)

1년 과정과 학기 과정 구분(과목별 현장 전문교수님들로 구성. 원택한 이론과 실습 추구) 실용의 정원과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시민 대상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 생활 원예, 생활 정원에 활용. 특히 넓은 정원 과 실재 생산 농장에서 경험하고 체험, 실습시스템.

국화분재 전문반/ 3~11월(월 2회, 약 15~18회, 함평 나비축제, 국화대전의 대부 이순영 소장 직접강의)

국화분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손수 모양담기, 가지치기, 가를 주기, 유인하기, 분재 양하고 예술적 표현하기 등의 과정을 학습하고 작품의 발표 및 전시 등의 기회를 갖습니다.

정원 시공 전문반/ 비정기 개설(약 5~10회, 소수정예 강좌, 선착순 예약 대기 제 시행)

우리씨드그룹의 박공영박사의 직강프로그램으로 정원, 조경, 설계 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강좌. 아생화의 특성과 정원의 이용, 정원테마별 현장 강의-단기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 예약 대기자만 미리 신청, 대기하는 과정에서 강의 가능한 현장여건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현장교육.

주말특강반/ 3월~11월(격주 토요일)

* 상반기 예정: 정원 공간의 이해, 구근의 모든 것, 배란다정원, 키친가든(채소정원), 정원식물의 종류, 침초의 모든 것, 가지치기의 모든 것, 음자정원, 여름정원, 수생식물과 연못

특별프로그램 / 4~11월, 사전 예약(10인 이상 단체 예약도 가능)

자연교감프로그램(정원안내+체험), 아생화 분경 체험, 씨앗친구와 놀기, 꽃차 소믈리에, 꽃의 향기와 맛(비법법제법), 아생화 반식, 나눔의 체험 등 계절별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강의 공지 및 후기 : <http://gardenjoa777.blog.me>

강의 문의 및 접수 : Tel: 031-712-7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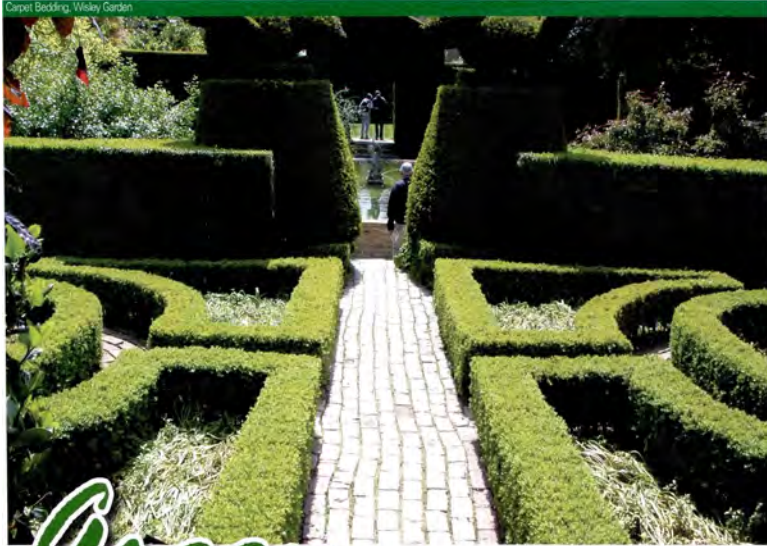
Fax: 031-634-7991

교육담당자 mail: gardenjoa777@naver.com

우리씨드 교육만의 특징

01.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02. 검증된 교수진
03. 이론수업과 실습현장의 균형
04. 풍부한 교육자원과 다양한 혜택
05. 정원문화의 소통의 장

Carpet Bedding, Wisley Garden



Green COLOUR IN THE GARDEN

오도

종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恵泉女学園園藝生活学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녹색은 자연의 색이다. 파란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닿는 산 능선이 그렇게 파란 들뜬에 불과 나무들이 그렇다. 또한 봄이 되면 차가운 냉기를 밀어 올리며 솟아오르는 새싹들의 칼럼도 녹색으로 빛이 난다. 산과 들을 걷다보면 식물들이 가지는 녹색의 일과 줄기의 색상은 참 다양하다. 짙고 검은 빛이 나는 진녹색에서부터, 너무 얇아서 햇빛이 통과 할 것 같은 연노랑의 녹색에 이르기까지, 녹색 하나의 색안으로도 아름답고 멋진 정원 연출할 수 있다. 녹색이 주는 편안함과 생명력 그리고 신선함과 뜻밖한 젊은이들의 활기 왕성한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Green Colour'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녹색은 모든 색을 아우르는 색이다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영국의 정원(English Garden)을 돌아보다 보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만다.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웅장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원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잔디밭과 울타리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대로 꾸며진 화단의 화사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들이 꽃에 담겨져, 때로는 화사하게 때로는 수수하게 화단이 꾸며지지만, 그 모든 바탕에는 초록의 잎들과 잔디 그리고 나무들이 어우러져, 화단의 다양한 색채들을 품어 준다. 녹색은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등 모든 색을 아우르는 색이다.

녹색은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좋은 색이다

'녹색정원'하면 떠오르는 곳은 역시 프랑스식 정원일 것이다. 드넓은 정원에 화향나무나 주목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듯 울타리식으로 나무를 심어, 전경을 통해 각각의 모양을 수놓듯이 만들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깔끔하면서도 1년 내내 상록이기 때문에 늘 푸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현대식 정원에서도 간혹 볼 수 있으며, 특히 허브정원에서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나가며 모던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꽃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단점을, 녹색이면 서도 더디게 자라고 단정하면서도 상록인 작은 나무나 허브류를 통해 극복해 내고 있다.



녹색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 주는 색이다

내추럴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녹색의 매력은 역시 친근함과 편안함일 것이다. 초록에 노랑이나 연두색을 섞어주면 명도가 높아져 한가롭고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갈색을 섞어주면 어둡지만 차분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녹색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마음껏 정원으로 끌고 들어와 보자.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갖가지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색들의 신선함과, 매일 앉아서 공부하는 교실의 칠판도 녹색인걸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녹색을 바라볼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1. 녹색과 녹색의 어울림

녹색은 진한 녹색에서부터, 흰색에 가까운 녹색, 황록색, 청록색 등 그라데이션의 폭이 매우 넓다.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만든 정원이 커니퍼정원(Conifer Garden)이다. 주로 상록성의 나무들을 모아 식재해서, 1년 내내 푸르른 정원을 볼 수 있다. 녹색의 다양함을 잘 살리면, 정원에서의 깊고, 얕음, 멀고 가까움의 표현도 가능하다. 겨울에도 녹색을 정원으로 들여오고 싶다면 커니퍼정원을 만들어 보자.



2. 녹색과 흰색의 어울림

흰색의 꽃을 모아 심은 화단이 화이트가드(White Garden)이다. 흰색의 꽃들을 모아 심기는 해도 녹색과 흰색의 비율은 7:3 정도로, 흰색 보다는 녹색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한다. 흰색이 너무 많으면 흐릿하고 정돈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녹색과 흰색의 적절한 조합으로 녹색의 편안함과 흰색의 맑고 깨끗함을 효율성 있게 이용해 보자.



3. 녹색과 빨강의 어울림

녹색과 빨강은 색상환에서 정 반대 편에 위치한 보색의 관계로, 정원에서는 녹색은 빨강을, 빨강은 녹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만병초는 이 보색의 효과를 식물체 하나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녹색의 잎을 바탕으로 빨간색의 꽃과 꽃이 가지는 동글동글한 공 모양들이 그대로 드러나 아름다운 자아낸다.



4. 녹색과 보라색의 어울림

녹색의 초원위에 잔잔한 노란색의 라널큘러스(개구리자리)가 바다로 깔리고, 백합과의 알리움의 꽃들이 공중에 떠 있듯이 수를 놓고 있다. 보라색은 녹색과 거의 보색에 가까운 반대에 위치하지만 중간에 노란색이 들어가 둘 사이를 부드럽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녹색과 보라색과 노란색이 같이 바람에 흔들리기라도 하면 그 아름다운 두배가 될 것이다.



Green 정원에 어울리는 식물들





과꽃속(Genus Callistephus)

과꽃 속은 1종의 식물, 즉 과꽃 1종이다. 하지만 과꽃은 대표적인 정원, 화단식물로 전통적인 품목이다. 직립하는 관목처럼 자라고 성장이 빠른 일년생이지만 그해 꽃을 피우지 못하면 다음해까지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생을 마감한다. 중국의 절벽이나 절벽의 작은 모래부스리기와 돌조각이 떨어져 쌓인 곳에 자생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백두산주변의 도로가 바위와 마사지에서 자주 발견하여 도입하였다. 이름을 야생과꽃이라 하여 일부 판매도 진행하였다. 잎은 어긋나고 거친 톱니와 털이 있다.

원래는 한국의 북부와 백두산을 거쳐 동남부 만주지방에 나는 식물로 18세기 프랑스로 건너가 개량되었다.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현재도 그 야생지는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유 특산종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중국원산으로 기록되어 알려진 게 안타깝다.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Aster속으로 분류되었으나 Callistephus속으로 명명된 지 오래지 않는다. 주로 야생에서는 보라색이 대부분이지만 현재는 보라색계열 흰색, 빨강색계열로 다양하고 키도 고성종의 절화용과 중성종의 화단용 그리고 왜성종의 분화용으로 육성 인기를 받고 있다. 내한성이 강해 초겨울까지 꽃을 볼 수 있다. 배수가 잘되고 햇빛이 충분한 곳을 좋아 한다. 초봄 낮 기온이 16℃ 이상일 때 파종을 하거나 봄 중순에 직파한다. 진딧물의 피해가 있다.



초롱꽃 속(Genus Campanula)

초롱꽃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상록성인 일년생 혹은 이년생부터 다년생의 300여 종으로 된 속이다. 전 세계 북반구에 널리 분포하고 특히 남부 유럽과 터키 등지의 온화한 지방에 넓게 퍼져 분포한다. 또한 높은 고산 지대의 암석 틈이나 초원, 삼림, 황무지 등의 돌 부스리기와 마사토 같은 다양한 서식지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도 초롱꽃, 섬초롱, 자주꽃방망이 등 많은 종이 자생한다. 꽃은 종 모양을 하고 있어 주로 벨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추꽃차례, 총상꽃차례 또는 때를 지어 피기도 하고 단독으로 피기도 한다. 꽃은 관 모양의 종 모양으로 별, 킷, 접시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초롱꽃은 키가 10cm이하인 매트형에서부터 2m(6ft)에 이르는 초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습성을 갖는다.

키가 작은 초롱꽃은 암석정원이나 고산의 온실정원에 이상적이며 담벼락이나 별이 잘 드는 독에서 잘 자란다. 키가 큰 다년생 초롱꽃은 혼합식재 화단에 좋으며, 야생화정원이나 삼림생태 정원에 자연스럽다. 그리고 내한성이 약한 것에서 아주 강한 것 까지 다양한데 다음과 같은 재배 그룹으로 나뉘어져 왔다.



1. 초롱꽃은 중성에서 알칼리성의 축축하지만 배수는 잘 되는 곳으로 빛이 잘 들어나 일부활엽수 아래 비옥한 토양을 좋아 한다. 꽃의 색은 그늘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캄파눌라 피라미달리스(C. pyramidalis), 캄파눌라 싸마티카(C. sarmatica), 캄파눌라 트라체리움(C. trachelium)종은 마른 토양에서 잘 자라며 처음 들은 별이 잘 드는 곳에, 트라체리움은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키가 큰 종은 지지대를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꽃을 보기 위해서는 컷팅을 요한다.

2. 생육이 좋은 암석정원에 알맞은 종은 습기 있지만 배수가 잘 되며 별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한다. 일부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몇몇 종은 별이 잘 드는 담벼락이나 독에서 자란다.

3. 경작지 주변의 서식지에 토심이 깊고 건조한 곳에 자라는 종류는 겨울 월동과정에서 수분이 많으면 오히려 약해진다. 석회암지역의 축축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모래마사 토양에서 자란다.

4. 재배가 까다로운 다년생들은 마사토양의 충분한 퇴비를 혼합한 화분에 재배되며 겨울에는 너무 온도를 내리지 않는 온실에 재배하고 여름에는 적당한 물을 쳐 햇빛을 막아준다. 자랄 때는 적당한 물을 주어 축축하게 하고 미량요소가 골고루 든 균형 잡힌 액비를 매달 공급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은 가지를 밑 부분까지 잘라준다.



초롱꽃 속 식물은 주로 봄가을에 분주하는 게 좋다. 다년생 식물은 봄철에 기저부를 잘라 이식하고 키가 작은 매트형 종은 이른 여름 새로 자란 줄기를 잘라 삼목하고 가을에는 뿌리를 이용해서 증식 로제트화 한다. 추해로는 주로 응애와 진딧물 그리고 민달팽이의 피해가 있다. 또 뿌리가 굵은 종들은 바구미 피해가 있고 야생동물이 있는 정원은 토끼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



칸나 속 (Genus Canna)

줄기뿌리가 튼튼한 지하경을 갖는 여러해살이풀로 50여 종이 있고 주로 숲 가장자리나 물기가 많은 삼림지와 넓은 초원의 경계가 있는 아열 대성의 아시아와 북. 남미에 있다. 칸나는 대부분의 종과 재배종에서 30-60cm길이의 큰 노 모양의 잎을 가진 대형식물로 이들은 깃모양의 맥과 기부에 엽초가 있다. 화려하고 밝은 색의 꽃은 원추꽃차례와 총상 꽃차례를 이루는데 매력적이고 비대칭적인 꽃은 통꽃으로 3개의 꽃잎과 3개의 꽃판과 눈에 띄는 수술이 있다. 다양한 종들의 교배로 수백 종의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교배그룹간의 차이가 자가 교배로 인해 점차 희미해짐에 따라 종명은 주로 기재 하지 않고 상업적 품종명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뿌리를 캐내어 따뜻한 곳에서 월동보관하고 남쪽에서는 충분한 흙을 덮어 노지 월동을 시키기도 한다. 주로 퇴비를 많이 살포하고 물은 충분히 주며 간혹 낮은 물속에 기르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깊은 물에는 좋지 않아 화분에 심어서 물 밖으로 화분이 솟아나게 설치하면 더욱 좋다. 반음지와 양지에서 잘 자란다.

개화를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시든 꽃을 따주면 계속해서 서리를 때까지 개화한다. 첫서리가 내리면 잎과 줄기가 검게 변하는데 이때를 놓치지 말고 캐내어 굵은 알뿌리를 잘라내고 온실 등의 그늘에 말려 소독한다. 보관은 주로 피트모스나 코코피트로 된 원예용상토를 습기를 없애고 너무 온도가 높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한다. 이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겨울에 순이 나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 8℃ 이하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식재는 구근을 끝순을 붙여 자르고 구멍이를 크게 판 다음 잘 짙은 퇴비를 넣고 흙을 덮은 후 구근을 위에 올리고 다시 흙을 완전히 덮는다.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는 물을 많이 주지 않는다. 상처부위가 썩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땅위로 잎이 두둑 이상자라면 충분히 물을 준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귀경한 번 와~보셔요
있을 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제품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쪽~핑크다!! 비로만 듬뿍!!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상록잔디패랭이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꽃방석, 말해 줘!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아니 열~수, 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를 꽃향기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팅커벨 시리즈

Special Issue

이제는 정원시대

— 혼합식재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자 —

정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답답함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식물을 가지고 3계절 내내 다양한 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혼합식재'를 정원에 구현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원시대로 한 발 내딛는 지금의 시대에 정원의 '혼합식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 혼합식재란 제한된 면적 안에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 연중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식재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식물들의 화기와 화색, 그리고 생태적인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조화와 다양한 변화를 살려야 하는 조경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조경인들은 앞줄에는 키가 작은 것, 뒷줄에는 키가 큰 것 혹은 앞줄에는 봄꽃, 뒷줄로 가면서 가을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이는 혼합식재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식재유형이 가지는 한계는 우선 단조로움, 짧은 수명, 촌스러움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혼합식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물 상호간의 생태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

어떤 식물은 봄에 일찍 개화하고 지상부의 모든 잎들이 사라지고 휴면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뿌리줄기의 왕성한 번식으로 예상 못할 정도의 강한 번식력을 갖는다. 또 다른 식물은 종자번식이 너무 잘 되어 첫 해에는 일부 예상된 지역에서만 개화하지만 다음 해에는 전체적으로 발아 성장하여 경관의 균질을 바꾸기도 한다. 또 어떤 식물은 여름 우기에 녹아 버리거나 여름에 갑자기 번성하거나 휴면 후 여름 이후에 성장 개화한다. 때문에 식물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2~3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각 식물의 잎이 가지는 질감, 혹은 색상의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잎 특유의 무늬종들이 많이 보급됨으로써 꽃이 피지 않아도 특징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혼합식재에 요구되는 몇가지의 기본 상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연출이 더욱 다양해지고 아름다워지기기를 희망한다. 특히 여기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조경소재의 생태,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식재지의 감상포인트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가 다니는 도로변인가, 골프장의 티 주변인가, 또는 가정의 작은 화단인가, 식당의 주차, 혹은 휴식공간인가 등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차 안에서 감상하게 되는 도로변이라면 우선 색과 계절, 그리고 식재라인을 고려하고 골프장의 티 주변, 이동통로 등이라면 이런 곳은 화색, 화기, 식재라인은 물론 주변경관의 어울림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혹은 이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각 식물의 감상포인트가 약 2주 정도로 짧고 화려하며 빠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식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A식물은 잎이 푸른색이며 키가 크고 화색은 보라이며 7~9월에 개화하고 주로 뿌리줄기를 이용 번식하고 맹아력이 좋은 반면 건조와 음지에는 매우 약하며 개화기에 꽃은 매우 예쁘지만 진딧물이 잘 끼는 식물이라고 하자. 이 식물은 우선 뿌리줄기에 의하여 다른 구역을 침범할 수 있으므로 용기식재를 하거나 땅속 펜스를 쳐서 식생경계를 확실히 해야한다. 그리고 잎이 푸른색이며 맹아력이 뛰어나므로 잎의 질감을 이용하기 위한 손질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쉬운 곳에 배치한다. 건조에 약하므로 식재용기의 선택과 식재지 토양, 혹은 쉽게 관수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고 7~9월 보라색의 꽃을 피우므로 다른 식물과의(개화기가 같은 주변 식물) 화색 조화를 고려한다. 개화기에 충화가 있으므로 건물의 창가나 일반 관람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곳 또는 방제가 용이하도록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적절한 구조물 혹은 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계단 옆의 암석구조물, 또는 꽃이 너무 커서 쓰러질 염려가 있거나, 뿌리줄기의 왕성한 번식이 있거나, 수분에 약 또는 강하거나, 덩굴성이거나 하는 식물의 경우 이들의 이런 특성을 방지하거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물, 자재를 미리 고려해 원하는 모양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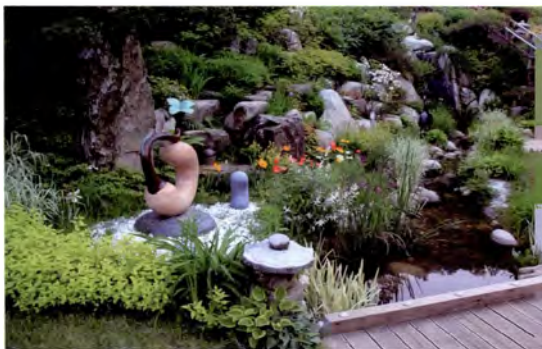
넷째, 생태적 그룹을 고려한다. 식물의 생태적인 특성



에키네시아, 배초향, 기우라 등 다양한 식물들이 혼식재 되어있다.

혼합식재에 요구되는 몇가지의 기본 상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 연출이 더욱 다양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여기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조경소재의 생태,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을 고려하여 화기, 화색, 키, 식물의 휴면기, 무늬중, 잎의 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화색의 경우 울긋불긋한 원색의 그룹을 넓게 식재하면 너무 강렬하여 촌스러워진다. 또 너무 차갑거나 어두운 색을 잘못 혼합하면 너무 무거워지거나 화려함이 덜하게 되므로 대체로 꽃색을 섞어 파스텔화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계절별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개화만 유도하여 한 종류로 이루어진 느낌도 고려할 수 있다. 화기의 경우에는 화색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피는 식물의 경우, 바로 옆에 심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심거나 다른 화색의 식물과 함께 심는 것이 중요하다. 키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화기와와 상관관계도 아울러 중시해야 한다. 단순히 봄에 일찍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을 키에 의해 조정하게 되면 식재의 적용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봄 일찍 피는 매발톱의 경우, 꽃도 아름답지만 잎도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로 이를 키대로만 심게 되면 보통 화단의 중간쯤 혹은 뒷줄로 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매발톱의 경우 적당히 앞쪽, 또는 아래에 뒤쪽, 중간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대체로 봄 일찍 개화하는 식물의 경우 다른 여름 가을 식물에 비해 초기 생육이 매우 빨라, 여름 가을 식물들이 자라기 전에 개화하므로 앞이나 뒤나 관상에 있어서는 제약을 덜 받는다. 이들은 꽃이 지고나면 예쁘게 잘라 다시 잎을 받으면 아름다운 잎의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잎에 무늬를 가진 식물들을 적절히 혼합, 꽃이 피지 않는 경우에도 아름다움을 특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식물의 자람과 휴면기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식물은 사계절을 모두 파랗게 상록으로 자라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봄에만 잠깐 나왔다 꽃만 피고나면 사라지는 종류가 많다. 이들의 경우 생태적인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식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크로커스 또는 알리움속의 구근식물의 경우 봄 일찍 개화하고 바로 휴면에 들기 때문에 지상부가 사라지게 된다. 이들의 경우는 앞뒤 기타 다른 식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화기와 화색만 고려하여 전면에 식재할 수 있고 꽃잔디의 경



정원의 연못주변으로 색깔이 좋은 식물들이 조화롭게 여우려져 있다.



아스타류가 식재된 사이에 역새가 포인트 식재되어 입체감을 더해준다.

우 봄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꽃이 없으므로 두메부추, 패랭이, 꽃우룻, 너도부추 등과 같은 식물과 혼합하면 좋다. 금낭화, 복수초, 노루귀 등의 경우도 비슷한 휴면기를 가지므로 여름, 가을 식물과 혼합하여 서로 생육기를 달리하는 방법도 좋다.

여섯째, 보수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혼합의 경우 다양한 식물이 한꺼번에 식재되므로 일반적으로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도태(이 경우는 식재 전 특성을 잘 고려하면 줄일 수 있음)가 있으면 정리, 보식하거나 이른 봄 원래 계획한대로 식물들이 자라는지 확인하고 개체 수를 조정하거나 잡초 제거 또는 식물별 비배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봄 일찍 개화한 꽃들의 마른 줄기나 여름 꽃이 진 줄기를 잘라내는가 하면 잎이 너무 무성해 다른 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물의 경우 잎 따기 혹은 솎아내기를 제때에 해 주어야 한다.



호스타와 같이 잎이 좋은 식물들도 혼합식재시 주요한 소재이다.



1년생식물로 혼합식재되어 일정한기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기존 화단의 식물사이로 혼식재 되어진 튤립이 이른 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노랑색으로 혼합식재 되어진 갈라정원

혼합식재는 이처럼 전반적인 식견과 적절한 사후관리가 전제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대부분의 화색을 시기별로 표현할 수 있고 거의 연중 관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 번의 식재로 몇 년을 관리할 수 있거나 일부 식물만 교체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시 변화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기를 계절별로 특성 있게 이미지를 달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혼합식재의 효과는 이처럼 놀라우리만큼 확실하다.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막연히 타부시할 대안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완성도를 높여야할 모두의 과제라 하겠다.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쓰임새가 많은 맑고 아름다운 식물 '연꽃'

연꽃(Nelumbo nucifera)은 흙탕물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아가 빛과 극락을 상징하기도 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연꽃은 씨 주머니 속에 많은 씨앗을 담고 있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여 그림이나 건축물, 의복, 자수 등에 연꽃을 많이 새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연은 식용 연으로 주로 분홍색의 홑꽃을 가진 연으로 7-8월에 걸쳐 포기당 약 7송이의 꽃을 피운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면 별집 모양의 열매가 10월중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는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있다. 연꽃이 지고 나면 생기는 열매를 연실이라 부르고 집안을 치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한다. 또한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뿌리는 연근이라 하여 식용으로 즐겨 먹으며 연잎으로 담은 연엽주와 연향차는 고유의 술과 차로 사랑을 받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연꽃을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며 오래 복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였다. 연은 식품으로 보다는 약재로서의 효용가치가 훨씬 크다. 연잎, 꽃, 줄기, 연밥, 연근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연밥과 연근'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다.

명이나 있는 뿌리는 연근이라 하여 식용으로 즐겨 먹으며 연잎으로 담은 연엽주와 연향차는 고유의 술과 차로 사랑을 받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연꽃을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며 오래 복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였다. 연은 식품으로 보다는 약재로서의 효용가치가 훨씬 크다. 연잎, 꽃, 줄기, 연밥, 연근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연밥과 연근'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다.



명이나 있는 뿌리는 연근이라 하여 식용으로 즐겨 먹으며 연잎으로 담은 연엽주와 연향차는 고유의 술과 차로 사랑을 받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연꽃을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며 오래 복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였다. 연은 식품으로 보다는 약재로서의 효용가치가 훨씬 크다. 연잎, 꽃, 줄기, 연밥, 연근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연밥과 연근'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다.



연꽃잎

연꽃잎은 맛이 달면서도 약간 쓴데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타박상으로 인한 울혈을 치료하고 상처에 쭈어 붙이면 지혈효과도 크다. 흰 연꽃잎 한 장을 증기가 난데 붙이면 놀랄 만큼 빨리 낫는다. 연꽃의 수술을 말린 것은 치질과 치루를 치료하는 데에도 쓰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심한 갈증을 멎게 하고 혈당치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늘에서 말린 연꽃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이를 차 대신으로 마시면 지양강장 효과가 있다.

연뿌리

연뿌리는 맛이 약간 달고 뚝은맛이 나는데 반찬으로 늘 먹으면 식용증진, 강장, 강정의 효과가 있고 니코틴을 해독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지혈효과도 뛰어나 부인들의 갑작스런 자궁출혈이나 대변출혈, 이질, 소변출혈 등에 좋다. 연뿌리와 연밥으로 차를 만들어 먹으면 피부를 곱게 하고, 여드름이나 주근깨를 없애는 등 여성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는 연뿌리를 생즙을 내어 하루 두 번 한 번에 한 컵씩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연뿌리의 주 성분은 녹말이지만 아스파라긴, 아지닌, 티록신 등의 아미노산과 레시틴, 펩틴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크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은 흑발색으로 쉽게 변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식초에 담가 요리하면 된다. 연뿌리를 삶을 때에는 살짝 삶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식포를 넣어 삶으면 나쁜 맛도 없어지고 빛깔도 선명해진다. 연뿌리의 끈끈한 성분은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된 것으로 이 끈끈한 물질을 이별을 서러워하는 남녀의 정으로 옛 사람들은 비유하기도 했다.

연잎밥 만들기

연잎의 그윽한 향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연잎밥!!!
소중한 연인이 찾아오면 꼭 드리고 싶은 연잎밥을 소개합니다.



재료- 연잎4장, 찹쌀, 은행50g, 잣30g, 호두50g, 흑미 조금, 연자

- 1 연씨는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쪼개 배아를 떼어낸 다음 물에 불려둔다.
- 2 찹쌀과 흑미는 깨끗이 씻어서 1-2시간 불려둔다.
- 3 은행은 껍질을 벗기고, 잣과 호두는 정갈하게 손질하여 준비한다.
- 4 준비해 놓은 재료를 고루 섞어서 찜통에 애벌 찜다. 김이 오르면 중간에 한 번 섞어서 골고루 익게 한다.
- 5 찹쌀이 찌지던 연잎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없애고 펼친 다음 찜밥을 얹어서 남은 여분으로 감싸면서 찜통에 다시 한 번 찜다.(15-20분정도)

연꽃 기르기

이제는 가정에서도 연꽃씨앗을 직접 발아시켜 손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 1 먼저 니퍼나 뿔치로 연 씨앗의 한곳에 흡입을 내어 물이 속살부분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딱딱한 껍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해서 속살의 흰색부분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2 물 컵이나 페트병 속에 연 씨앗을 담아 양치 바른 곳에 놓아두시면 약 1주일 지나서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 3 처음에 넣었을 때는 물위에 뜨는 것도 있으나 조금 지나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 4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색깔이 부엌에 흐려지게 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가끔씩 물을 갈아 주시면 되며, 될 수 있으면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 갈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 5 연 씨앗 한 알에서 싹이 3개쯤 돌아나기 시작할 때 연 씨앗 부근에서 하얀 뿌리가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 6 싹이 물위로 솟아 손바닥만한 뜬 잎이 생기면서 하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흩어 있는 용기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 7 옮겨 심을 때 용기는 좁고 깊은 항아리보다는 얇고 넓은 것이 좋습니다. 흙은 깊이는 30cm 이상이면 되고 물은 흙에서 10-15cm정도 깊이면 됩니다.

Step by Step

연꽃 기르기



Spring

봄의 향기 식물 HERB

초보자에게 허브는 씨앗으로 쉽게 접하며 많은 수확을 얻어 가장 쉽고 병충해 없이 가꾸는 식물로 종자의 파종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원의 식재로 혼합하여 심는다면 여러가지 유익한 점을 발견하리라 본다. 슈퍼마켓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한 포기와 비교한다면 가족의 요리를 만들며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허브의 레시피를 맛보며 커다란 뿌듯함을 느끼리라 본다. 이봄 허브향과 시작하는 봄을 맞아 향기 그윽한 요리로 봄의 입맛을 새롭게 하여 보자



초심자에게 추천하는 허브향이 좋은 식물은 아래와 같다.

향이 강한 허브: 저울사보리, 로즈마리, 세이지 세이보리, 로즈마리, 세이지

• 정원의 액센트와 허브향이 강한 것: 스위트바젤, 딜, 민트, 스위트마조린, 타라곤, 타임

• 정원의 액센트와 허브 향이 강한 것: 스위트 바젤, 딜, 민트, 스위트 마조린, 타라곤, 타임

• 음식에 다져 넣는 것: 차이브스, 파슬리, 세이보리

• 1년생 : 바젤, chervil, 코리안더, 딜dill, savory

• 2년생 : (2년 생존하고, 두번 개화식물) caraway, parsley

• 다년생 : (내한성과 계절에 따라 각 한번씩 개화) chives, fennel, lovage, marjoram, mint, tarragon, thyme, winter savory.



허브는 종종 약용과 식물 두 가지 쓰임새로 명성을 얻는다. 세이보리처럼 향도 좋고 유용한 식물이라면, 고대 로마 시대 플리니우스와 배트길리우스가 만약으로 효험이 있다는 등 꿀벌들을 불러모은다는 등 찬사를 늘어놓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세익스피어 역시 세이보리의 향기를 언급한 바 있다.

Savory 세이보리 : 일설에 따르면 속명(Satureia)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호색한 사티로스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여름 세이보리(Satureia

horensis)는 보다 예민한 한해살이 풀이고, 겨울 세이보리(Satureia montana)는 원기왕성한 여러해살이 풀이다. 둘 다 꿀벌과에 속하며, 날렵한 바늘 모양 잎이 역센 줄기에 붙어 있다. 둘 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퍼져 그 풍토에 적응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신선한 세이보리를 송근하게 끓여 대두나 렌틸콩 요리에 넣기도 하고, 말린 세이보리를 오메가노, 타임, 로즈메리 등과 함께 섞어 허브 블렌드를 만들기도 한다. 이탈리아를 벗어나면 단맛이 더 많은 여름 세이보리는 회향 씨와 함께 소시지 양념에 널리 쓰이며, 과감한 맛의 겨울 세이보리는 비벼서 고기 위에 올려놓고 함께 굽는다. Taste여름 세이보리와 겨울 세이보리는 모두 로즈메리와 타임 향에 후추 향이 살짝 가미되어 있다. 그러나 더 신랄하고 타라곤과 비슷한 캐릭티의 겨울 세이보리보다는 여름 세이보리 쪽이 더 심세하다.

"Mint" & "Lemon balm" "Spianmint" : 가장 널리 쓰이는 민트는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다. 이 외에도 화장품이나 목욕제 등에 주로 쓰이는 '오레고론민트', 사과 향이 나는 '애플민트', 일가에 노란 띠를 두른 '파인에클민트', 보라색 꽃이 피는 '라벤더민트', 아이스티용 '오렌지민트', 샐러드와 차용 '전지민트' 등이 있다. 페퍼민트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서양박하다. 경유에 함유된 유리멘톨이 동양종보다 적지만 향기가 월등하고 쓴맛도 적다. 페퍼민트오일을 생산하는 식물로 후추처럼 톡 쓰면서 상쾌하다.

스피어민트는 유럽에서 나는 서양박하로 동양박하나 페퍼민트와는 전혀 다르다. 달콤하고 상쾌한 향이 강하



다. 민트 시럽의 원료가 되는, 고기요리의 필수 향신료다. 민트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로는 연대는 알 수 없다.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에는 "박하는 우리말로 방하라 하는데 여름과 겨울에 채취해 벌에 말려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하의 용도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식용업계의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Mint 민트: 주로 후식에 사용되는데 민트의 청량감과 살탕의 단맛이 조화가 잘되기 때문이다. 한번은 경주의 수제비 전문 식당을 찾았다가 민트가 후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특이한 것은 민트를 제공하는 방법이었다. 종업원들이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뜨거운 물을 한 잔씩 가져다주면 손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참문을 열고, 밖에서 자라는 싱싱한 민트 잎을 따서 바로 찻잔에 넣어 마신다. 이렇게 마시는 민트 차는 식사 후 텅텅한 입을 개운하게 해준다. 그 향이 일품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차이브Chives: 향은 톡 쓰면서도 향긋해 식욕을 돋운다. 북반구에서 광범위하게 야생으로 자라던 식물로 로마인들에 의해 유럽 서부로 전파되었다. 파의 일종으로 초여름에는 공 모양의 예쁜 적자색 꽃이 핀다. 오래전 사람들은 차이브를 '양파의 작은 동생' 정도로 생각했다. 차이브가 독하지 않은 양파 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브는 비타민C와 철분이 많아 혈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다. 음식에 넣으면 방부 역할을 하기도 한다.

Sage세이지: 오래 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널리 알려진 약용식물이다. 세이지는 영어 이름인데 프랑스어 Sauge가 변한 말로 흔히 샴비어(Salvia)로 불리기도 한다. '건강하다', '치료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세이지는 잎을 말려 사용하는데, 감강작용 외에 신경계통이나 소화기계통에 뛰어난 약효가 있다. 방부, 향균, 항염 등 살균·소독 작용도 해서 각종 염증의 소염제로도 쓰인다. 중풍이나 손발이 저려서 고생할 때, 심한 운동 후 피로와 통증이 몰려올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세이지의 잎과 꽃은 향기가 좋으며 줄기는 나무 같고, 잎은 부드럽고 폭신하다.

	요리에 사용되는 허브와 식재료 종류
Herb 종류	요리시 온도별 무익한 허브
Basil 바젤	토마토 & 토마토 요리, 치즈, 쌀, 계란, 소고기, 오리, 셀러드, 채소등등
Chive 부추	샐러드, steaks, 애피타이저 , 채소, 버터, 요구르트 & 사우어크림, 소스.
Mint 박하	레모네이드, 티,감자, 알고기, 소스 & 젤리, 사베트, 과일.
Parsley 파슬리	토마토소스 ,생선, 소고기,달고기, 스프, 찜 요리 채소.
Rosemary 로즈마리	알고기, 돼지고기, 채소, 치즈, 찜요리, 구이 요리 등등
Sage 세이지	생선, 소고기, 가금류, 스프, 구이, 토마토등등.
Savory 세이보리	돼지고기, 조개요리, 찜, 생선, 계란, 샐러드, 콩, 비스켓
Thyme (Lemon or English) 타임	찜요리, 생선, 조개요리, 계란, 빵, 비스켓, 콩, 브로커리, 양파등등

가든인 추천

10

봄 정원식물 10선

지금 심어도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식물 10가지를
'가든인'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하얀 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문득 상상을 해봅니다. 새하얀 구름 주변으로 보라색 구름이, 노란색 구름이, 자주색, 분홍색...

색색의 물감으로 수놓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일까요. 스멀스멀 봄 기운이 뻗치는 우리들 봄 정원에도 머지않아 아름다움이 밀려옵니다.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으로 채색된 봄 정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미처 색색의 아름다움을 준비하지 못한 정원에 보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든인'이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이 봄에 심어도 4월에서 6월초 사이에 꽃을 볼 수 있는 봄 꽃(더 확장해서 초여름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두르세요. 스르르 언땅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한 손에는 모종삽을, 한 손에는 '가든인'이 이 봄에 추천하는 꽃을 들고 정원으로....

봄의 기운이 이미 정원에 충만합니다.

1

꽃천지에 꼭 빠지다! 코레우리

Coreuri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핀다는 것. 그건 정원에서 늘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코레우리는 오랜시간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봄의 끝자락인 5월말부터 10월까지 장기간에 화하는 품목이다. 특히 아직까지 화해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멀리만 느껴지는 지금, 우리가 개발한 품종, 연구라는 담의 결실이란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현재 약 30품종이 판매되고 있는데 품종이 다양한 만큼 외견상으로도 꽃색깔, 꽃크기, 식물형태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불형태의 둥그란 모양을 가진 품종은 꽃이 피기전 식물의 형태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있다. 꽃이 장기간화하므로 이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 가정에서 분화 용으로도 가능하고 조경용으로 양지쪽의 도로화단, 결이 화분, 정원주책 정원 등등 그 활용도가 좋은 꽃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품종이 함께 만개된 모습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온다.

관리면에서는 생육이 강건하여 잘 자라는데 반면 우의할 점은 꽃이 오랫동안 필 수 있는 식물들 대부분 그렇듯이 개화후 꽃이 질때쯤 바로 커팅해주고 비료를 충분히 해주어야 바로 꽃대를 올리며 풍성한 꽃잔치를 이어서 보여줄 수 있다.



골드스타

골든볼



하디골드

하디트리칼라



루비링

미리



우리드림 오렌지

핑커벨 레드



2 아침이슬 굴러가는
소리에 봄이 깨어납니다.

알케밀라

Alchemilla

까까머리 어린 아이 머리통처럼 동글동글한 잎. 그 위로 빠져나온 꼬불 꼬불 노란색 파마머리, 아니 연두색의 많은 꽃이 스프레이형으로 피어난다. 꽃의 형태가 고급스런 이미지를 주고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잎은 연꽃과 같이 물이 떨어지면 은구슬과 같이 구르는 모습이 또한 아름답다. 특히 물가에 식재하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화단에 경계나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고 특히 다른 식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베이스식물로도 좋다. 포기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암석가든이나 여러식물을 함께 식재하는 혼성식재에도 좋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는데 걱정은 금물. 머리를 잘라주듯이 잎을 전체적으로 커팅해주면 바로 새순이 나와 새로운 잎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한 것을 싫어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화단에 식재를 해주어야 한다. 알케밀라 품종중에는 허브식물로 '레이 디스멘틀'이라고 불리는 품종이 있고 고산식물로 잎이 두껍고 키가 작은 품종이 있기도 하다.

3 봄에 라벤다꽃이, 아니면... 숙근사루비아

Salvia

어릴적 깨꽃이라 불렀던 빨간꽃을 우리는 사루비아라고 기억한다. 하지만 사루비아는 빨간꽃이라는 통념은 이제 버려야 한다. 보라, 빨강, 하양, 자주 등 많은 품종이 서서히 우리 앞에 선을 보이고 있다.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다년생인 숙근사루비아도 그 종류가 많다.

꽃은 보라색계통이 주류를 이루는데 봄에 촛불형태의 꽃이 아름답게 피면서 주위를 밝혀준다. 특히 사진처럼 대군락으로 피어 있는 모습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봄에 피는 라벤다가 있는 걸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라벤다정원을 연상하게 해준다.

화색이 고급스럽고 잎의 향기도 좋아 허브식물로 이용해도 좋고 꽃이 필때는 많은 벌들이 향기따라 주위를 배회한다. 이들은 햇빛이 잘 들고 통기성과 배수가 좋은 곳에 식재를 해주어야 생육이 좋다.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생육이 매우 불량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1차개화후 바로 커팅해주고 양분을 충분히 제공해주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다. 혼합식재정원, 암석가든에 이용하면 봄화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4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거... 독일붓꽃

German Iris

발주초초파랑보. 무지개. 유럽에서는 꽃색의 종류가 다양하여 무지개꽃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무지개 그 이상으로 다양한 색상을 수놓고 있다. 아름다운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연상시키는 꽃잎. 어떤 꽃은 같은 톤의 치마를 입고, 어떤 꽃은 서로 다른색이 어우러진 치마를 입고 봄나들이를 간다. 꽃잎 아래에는 부채살 모양의 미끈한 잎이 꼭 펼쳐진다.

너무 화려하다. 눈을 땔 수가 없다. 정원의 중심에서, 때로는 가장자리에서 자태를 뽐낸다.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맛에 너무 빠져만 있어서는 안된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배수가 좋고 알칼리성의 건조한 토양을 좋아한다. 특히 물빠짐에 민감하다. 조금이라도 배수가 불량하다면 여름장마를 지나면서 구근형태의 부리가 짓물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재시 구근의 보안 살이 토양 위로 조금 드러나게 식재를 해주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를 해주어야 내년 봄에 또다시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



봄, 꽃,

클레마티스

나른하던 정원이
기지개를 켜다

3월

클레마티스 12종 출시

우리꽃영농조합법인 Tel : 031-634-7990
www.uriseed.com



5 기대하시라. 꽃방석이 눈앞에 펼쳐진다.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패랭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상록패랭이라고 불리어 지는 종류는 키가 작고 잎이 은회색을 띄면서 겨울 상록으로 유지되는 수종을 말한다.

상록패랭이 종류도 너무도 다양한 품종이 있어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상록잔디패랭이도 그 중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종이다. 일단 어떤 다른 패랭이보다도 일찍 봄을 맞는다. 그리고 꽃수가 많고 윤기충기 모여 피어 일시 개화하면 말 그대로 꽃방석이 펼쳐진다.

놀라운 경관이 입도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름에 주춤했던 꽃은 다시 가을을 맞이하여 두 번째 꽃방석을 선물한다. 꽃이 지고나면 겨울을 맞이한다. 단정한 모습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봄이 온다. 마중나온 상록잔디패랭이의 진분홍 꽃미소가 정원을 가득채운다.

6 부추는 아니야, 그러면 봄처녀인가 비단너도부추

Armeria

오밀조밀하게 작은 부추잎처럼 생긴 솜털속에서 봄 햇살이 스며들면 달기맛 캔디 같은 작은 꽃사탕을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내민다. 너무 탐스럽고 귀여워 웬지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양지 바른 곳에 화분에 심어 가까이서 재배해도 좋고 정원의 물바짐이 좋은 곳에 두면, 세포기 모아서 심으면 작다고 깔보지 못한다. 아니 봄 정원에 더 큰 힘을 발휘하여 그 자리에서 발을 옮기지 못하게 한다. 소형의 미(美)라고 할까. 대형이 주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정원에서 느끼게 해준다.

봄에 꽃이 지면 바로 커팅해 주어 잎에 상심한 일을 유지해준다. 조금 건조해도 잘 견딜수 있어 오히려 물바짐이 좋지 않은 곳에는 흙을 올려줘 마운딩해서 심으면 좋다. 특히 여름더위를 싫어하니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겨울에도 옷을 벗지 않고 상록을 유지하다가 봄이 되면 꽃마중을 나오는 더할 나위 없는 봄처녀이다.



7 봄에도 국화는 있습니다. 하늘국화

Brachycome



송글송글 보라색, 하얀색 꽃이 매일매일 한송이씩 피기 시작하여 잠깐 뒤돌아 있다가 어느날 정원을 보니, 아! 보라색 이불을 덮고 있다. 하얀색 이불을 덮고 있다. 찬바람이 들어 올 빈틈 하나없이 보라색, 하얀색 꽃이불이 조밀하게 뒤덮혀 있다. 파란 하늘과 하얀 문계구름을 덮은 하늘국화가 우리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봄에도 국화가 있구나. 아니 하늘국화는 봄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모두 피는 전천후이다.

키가 작고 조밀하게 자라 정원의 앞 라인식물로 좋고 대면적 군식해도 좋고, 키 큰 식물사이 아래 베이스식물로도 좋고 다 좋다. 더 좋은 것은 꽃이 피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초대하여 노란방석을 내미는 하늘국화가 있다. 잎이 황금색인 하늘국화 '금방석'은 꽃도 좋고 잎도 아름다운 꽃방석이다. 올해가 기대되는 봄정원의 신입생이다.

8 초콜릿같은 달콤한 느낌을 전합니다. 왕아주가

Ajuga

정원의 활엽수 가장자리 아래 축축하고 안락한 곳에 자리가 비어 있다면 적극 추천한다. 봄에 피는 보라색꽃은 주위를 환하게 밝혀준다. 뒤 어가는 힘도 좋아 금세 주변을 파복시켜준다. 꽃이 진 후에도 윤기있는, 광택있는 커다란 잎은 왕아주가의 또 다른 매력이다. 특히 초콜릿 같은 적갈색 잎은 한 잎 베어물면 달콤한 맛이 날까. 그 남자가 꽃을 좋아한다면 초콜릿과 왕아주가의 앙상블을 선물한다면 어떨까. 그 남자를 위한 발렌타인데이엔..

겨울 물자는 곳에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자리를 잘 잡아서 식재해야 하고 양분이 많은 토양에서 더 좋은 꽃과 잎을 볼 수 있다. 양지에서 잘 살고 활엽음지에서도 잘 사는, 하지만 건조한 곳에서는 맥을 못추니 이 점만 주의하면 사계절 좋은 꽃이다.



9 붉은 가지, 봄눈꽃이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펜스테몬 상록홍엽

Penstemon

추운 겨울을 지나 겨울잠에서 깨어 봄을 맞이 위한 봄단장을 새롭게 하고 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분홍색 볼터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온다. 그리고 예기치 않던 하얀 눈송이가 내려온다.

어느새 가지위를 하얗게 뒤덮어 버린 봄눈꽃이 눈이 부셔 바라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봄에 하얀 눈을 감상하는 맛. 그 맛을 누가 알겠는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눈꽃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여 완전히 없어지면 바로 꽃대를 질러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붉은색 잎이 다시 생기를 찾아 정원을 누빈다.

직립성의 포기형태로 자라고 정원에 혼합식재는 물론 암석가든까지 다양하게 이용가능하다. 봄, 여름, 가을 3계절 꽃이 피는 것도 좋지만 한 계절만 꽃이 피더라도 잎이 4계절 좋다면 그도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원식물일 것이다. 이제 펜스테몬 상록홍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시기가 곧 다가온다.



10 나비에서 이제는 잠자리로 비상 가우라 '베이비' & '잠자리'

Gaura

10여년전 예상치 않게 거리화단에 날아온 나비들. 거리화단에 첫선보인 가우라는 부는 바람에 나부끼는 꽃모습이 마치 나비와 닮아 나비꽃이라고도 부르며 큰 인기를 구가했다. 5월말부터 저 아랫녔 바다 건너 제주에는 12월까지 꽃을 유지한다. 하지만 세월은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키 큰 나비꽃은 쓰러지기 심상, 한 번 쓰러지면 더 이상 날아 오르기가 쉽지 않다. 뒤를 이어 키 작은 분홍, 빨강, 하양 아기나비(베이비시리즈)가 한창 정원을 날아다니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기나비들이 소풍을 간다. 정원은 즐겁다. 한편 또 다른 욕심을 내본다.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해주는 아기나비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도 원한다. 이를 알았을까. 어디선가 잠자리(잠자리 시리즈) 두마리가 날아온다. 꽃, 꽃대, 꽃봉오리가 온통 붉은 '고추잠자리', 가는 줄기 따라 꽃이 주렁주렁 달고 정원 속을 날아 다니는 '실잠자리'. 다음은 어떤 친구를 또 불러야하나. 욕심 그만내고 베이비 친구와 잠자리 친구들과 10년은 같이 지내야하지 않을까.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까?
정원은 현실입니다
(주)벽화수가
현실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이제 정원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원시공, 설계, 관리, 컨설팅 이제 진정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택정원, 암석정원, 연못정원, 수직정원 등
(주)벽화수는 고급정원 설계, 시공 전문기업으로 여러분을 찾아합니다.



주택정원



암석정원



생태연못



아라가든



벽화수주식회사

T. 031.726.0610 F. 031.634.7991

반갑다! 춘식구근 이제 정원속으로 놀러가자!



춘식구근이란 봄에 심는 구근 식물을 뜻하는데 보통 춘식구근은 내한성이 강하고 이른 봄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춘식구근은 내한성이 약하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인 연속개화하는 종류들이 많다.
구근은 혼합식재의 중요한 수단이며 재료이고 특히 대부분의 구근식물은 매우 화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춘식구근에는 어떤 식물이 있을까?

춘식구근은 글라디올러스, 다알리아, 크로커스미아, 자란, 구근베고니아, 칸나, 백합류, 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히브란투스, 리아트리스, 꽃무릇, 티그리디아, 갈라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목들로써 주로 절화로 많이 보아 온 식물이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 알려져 노지에 심어지면 퇴화하여 죽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농가 재배용은 절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잘라서 팔게 되므로 영양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불량하게 자란다. 그러나 그 불량한 개체를 1년동안 잘 관리하면 그 다음해는 좋은 꽃을 다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원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꽃이 다 피고 절매까지 자르지 않기 때문에 매년 좋은 꽃을 볼 수 있고 포기도 더욱 커진다.

2. 춘식구근의 정원에서의 이용법

대부분의 춘식구근은 매우 아름답다. 따라서 정원에서 포인트식물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나리류 등 일부 품종은 내한성이 강하므로 어디에 적용해도 좋으나 기타 식물들은 겨울 월동문제를 고려하여 식재해야 한다. 그리고 글라디올러스와 일부 백합류는 줄기가 곧고 길게 자라게 되므로 60cm정도에 망을 설치해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고 다알리아의 대륜종(꽃의 지름이 약30cm에 이르는 종도 있음)은 지주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다알리아 등은 종자파종에 의해서 재배되기도 하지만 실제 구근으로 재배되는 품종의 화려함을 따라올 수가 없다. 다알리아는 6~10월까지 꽃을 피우므로 장소가 준비된다면 화려한 다알리아 품종별 적용을 통해 매우 화려한 정원 연출이 가능하다. 오히려 일반적인 정미원을 훨씬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가진다. 글라디올러스 등도 품종이 10,000종이 넘을 정도로 분화가 잘되어 있고 화색이 매우 다양하다. 구근베고니아의 화려함이란 직접 보지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다. 백합류는 꽃의 모양과 색, 그리고 품종이 워낙 다양하므로 절화용보다는 정원용 구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하늘나리와 같은 형태, 혹은 참나리형, 그리고 철포백합형이 좋다.

대부분의 춘식구근은 겨울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을 하거나 가을에 캐내어 실내보관 후 봄에 다시 심어야하므로 관리가 어려운 곳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꽃이 아름다운 만큼 보온관리에 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꽃이 크고 화려한 구근 다알리아 대륜종

춘식구근의 종류



글라디올러스



꽃백합



갈라



알스트로메리아



리아트리스



크로커스미아



칸나 황금



구근 베고니아



후리지아



꽃무릇



구근 다알리아



아이들을 힘나게 하는 시금치 spinach

아시아 서남부 원산으로서 한국에는 조선 초기에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흔히 채소로 가꾼다. 높이가 50cm이다. 뿌리는 육질이고 연한 붉은색이며 굵고 길다. 원줄기는 곧게 서고 세이 비어 있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있으며 밑부분이 깊게 갈라지고 잎부분은 밍긋하다. 잎들의 잎은 긴 삼각 모양이거나 달걀 모양이고 잎자루는 위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

1. 시금치수꽃 2. 시금치잎 3. 강화동글시금치는 강화군 삼신면의 김육본(69)할머니가 50년을 재배해왔다. 4. 완주군 강전면 삼상리 조산시금치, 맛이 좋아서 대를림하여 생는다. 5. 서양시금치는 잎이 둥글고 생육이 왕성하다.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좋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진지해지고 있다.

오래전의 만화영화에서

"보바이! 살려주세요~~!"

올리브의 비명 소리에 보바이는 시금치를 먹고 힘을 붙곤 내게 되어 올리브를 구하게 된다.

시금치가 정말로 힘이 붙곤 솟게 하는 것일까?



글 사진 안원식
토종씨드림 대표

물론 우리 몸에서 힘을 내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3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지만 시금치만 먹고는 힘을 낼 수는 없다. 사실 이 만화는 당시 미국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만 먹어서 채소섭취가 줄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이들의 채소섭취를 위해 특히 영양소가 많고 좋은 시금치를 먹이기 위해 보바이라는 만화를 이용해서 캐릭터로 아이들에게 다가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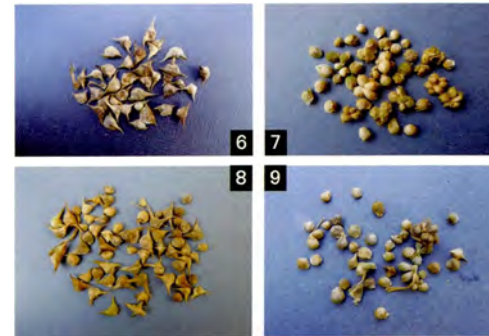
시금치 100g 중에는 철 33mg, 비타민A 2,600IU, B1 0.12mg, B2 0.03mg, C 100mg 과 비타민 K도 들어 있어있다. 그 외에도 칼슘, 카로틴, 엽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베타카로틴, 루테인, 패놀, 비타민C·E,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다.

미국의 뉴저지 주립대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이면서 건강 칼럼니스트인 전종영(田鍾榮) 박사는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금치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식품일 뿐만 아니라 급성심장병을 예방하는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호모씨스틴이라는 화학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유행을 공급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체내에 이 화학 물질이 누적되면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의학계는 많은 급성 심장병 환자들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 않나 호모씨스틴이 높은 점에 주목해왔다. 그런데 바로 이 호모씨스틴을 청소하는 것이 엽산인 것이다.

대표적인 녹색채소라 할 수 있는 시금치에는 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비타민 B1·B2·B6와 엽산 외에 철분, 칼슘, 요오드도 많이 들어 있다. 유일한 결점은 시금치에 들어 있는 수산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결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1kg 이상 섭취한 경우의 이야기로, 보통 먹는 정도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중종 22년(1527)에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서 생소한 중요 채소류로 '파릉(菠薐)'이라고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 강화 가시시금치 씨앗 7. 강화동글시금치 씨앗은 둥글다. 8. 강화 불시금치 씨앗 9. 동근시금치 종자. 완주군 운주면 유양군 (83)이이남작, 봄에파종

<형태 및 생리 상태> 명아주과의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풀이다.

시금치는 일반적으로 종자의 형태에 따라서 유각종(var. spinosa)과 환종(var. grobe)의 2변종으로 나눈다. 유각종은 동양종, 환종은 서양종을 많이 포함하며, 생김새나 성장에서 뚜렷한 적응성의 차이를 보인다. 2종의 잡종계 품종도 일찍이 육성하였다. 생육적온은 15~20℃이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산성 토양에 매우 약하다. 불시금치인 유각종은 일반적으로 꽃이 빨리 피며 추위에 강하다. 형태는 가늘고 작으며 잎살이 얇고 잎에 깊이 패어 들어간 흔적이 많으며 뿌리는 짙은 붉은빛이다. 토종시금치는 여기에 속한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장일 식물로서 햇빛이 길어짐에 따라 꽃대가 빨리 생긴다. 특히 동양종 품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심하여 동양종은 가을이나 겨울재배에 이용하고 여름재배에는 서양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낮 길이가 12시간을 기준으로 본엽 2~3매 때에 고온 장일을 받으면 쉽게 추대가 된다.



10. 강화갯벌시금치밭의 활동 모습 11. 강화 가시시금치는 고동면의 전종원 할머니가 재배해왔다. 씨가 크고 가시에 밀려서 병환 12. 불시금치, 곡성군 죽곡면 조남임(77) 13. 강화 불시금치는 주로 봄에 씨를 뿌린다. 14. 함양 불시금치

<토종 시금치> 시금치의 많은 품종이 외국에서 육성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래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인 남부지방과 서부 섬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추운지방에서는 봄에 파종하여 초여름에 수확을 한다. 강화군에는 여러 가지의 시금치 토종 변이종이 재배되고 있다. 종자에 붙어 있는 불시금치가 많지만 더러는 종자 모양이 둥근 동근시금치도 있다. 토종 동근시금치는 오랫동안 여성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고정된 것들인데 붙어 있는 종자취금이 불편해서 둥근 종자만 골라서 심어온 결과라고 한다. 강화의 토종 시금치는 아마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정유호란(1627) 당시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을 때부터가 아닐까 생각된다. 강화군 교동면의 신원식씨(78)는 이름도 없는 재래종 불시금치만을 어머니로부터 대를 물려서 30년째 넘게 심어왔다. 단맛이 많을 뿐더러 사철 언제든 파종하면 잎을 베어 먹을 수가 있으며 특히 그 맛이 좋기 때문이다. 강화시금치는 주로 불종자로 불종자인 겨울시금치는 속기가 빠르고 동양에서 많이 재배되므로 동양시금치라고 한다. 대륙성 기후에 적합하며 개화기가 빠르고 가을에 파종해도 추위에 강해서 영하 10℃에서도 잘 견뎌낸다. 형태는 가늘고 작으며 잎 살이 얇고 잎에 깊이 패어 들어간 흔적이 많으며 뿌리는 짙은 붉은빛이다. 강화에는 불시금치 외에도 교동면의 나원숙(70)씨가 심어온 씨 모양이 동그란 동근시금치도 더러 발견된다. 완도에서 수집한 불시금치, 하동의 불시금치, 곡성군 죽곡면 최인숙씨(64)가 심어온 동근시금치, 곡성군 죽곡면 조남임(77)할머니가 심어온 불시금치, 함양불시금치 등 전국 각지에 토종시금치가 많이 분포되어 재배되고 있다.



15. 강화군 하점면 박순자(70)할머니의 옛날시금치는 결각이 깊다.

<시금치를 자주 먹으면>

변비를 치료한다. 변비에는 야채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시금치와 당근을 섞은 주스가 가장 탁월한 효과이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칼슘, 인,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빈혈 및 영양 체질에 좋다.

암을 예방한다. 시금치는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시금치를 많이 먹는 것이 좋으며,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짙은 녹색 야채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정도 낮다고 한다.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콜롬로스타놀로 바뀌는 것을 시금치가 촉진시키며, 콜롬로스타놀이 체외로 배출되어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

류머티즘과 통풍에 유효하다. 체내에 유독한 요산을 배설시키기 때문이다.

변비예방과 빈혈에 효과적이다. 짙은 섬유소는 변비를 예방하고, 다량의 철분은 조혈작용을 돕는다.

이명호의 야생화

요상스럽게
생긴
기생식물의
생활사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기생식물의 정의

기생식물(寄生植物)은 다른 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식물들을 말한다. 종류도 많거니와 다른 식물들에 비해 생김새가 특이하거나 요상스럽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식물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겨우살이와 새삼이 있는데, 이들은 뿌리가 없거나 또는 스스로 뿌리를 없앴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하며 자라는 식물들이다.

전기생식물과 반기생식물

기생식물을 영양 형식에서 보면, 야고처럼 완전히 다른 식물에 영양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기생식물(全寄生植物)이 있다. 전기생식물은 엽록소가 없으므로 전체에서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에 겨우살이나 꼬리겨우살이처럼 스스로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양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숙주식물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흡수하여 종속영양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반기생식물이 있다. 기생식물은 변형된 뿌리를 이용해 다른 숙주식물(host plant)의 관다발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기생식물 중에서 새삼, 실새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광합성을 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겨우살이처럼 일부 광합성을 하는 기생식물을 반기생식물이라 부른다.

활물기생식물과 사물기생식물

또 전기생식물 중에는 야고·블로초·초종용·백양더부살이·개종용·새삼·실새삼처럼 살아 있는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활물기생식물과, 수정난풀·나도수정초·구상난풀·무엽란·대홍란·천마처럼 생물의 시체나 그 분해도상의 것, 배설물 등을 영양원으로 하는 사물기생식물(腐生植物)이 있다. 활물기생과 사물기생이란 섭취하는 탄소원·질소원 기타 영양물질의 화학적 특수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활물기생에서는 숙주에게서 기생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질, 즉 비타민·호르몬 등을 필요로 하지만, 사물기생에서는 이러한 공여물질을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양자의 뚜렷한 생활양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개종용(잡사)



▲ 개종용



▲ 겨우살이



▲ 겨우살이(꼬리겨우살이)



▲ 겨우살이(동백나무겨우살이)



▲ 겨우살이(붉은겨우살이)



▲ 구상난풀



▲ 나도수정초(군락)



▲ 나도수정초(잡사)



▲ 대홍란(잡사)

숙주식물에 붙는 위치에 따른 분류

기생식물의 뿌리는 흡기(haustoria)라 하여 흡기가 숙주식물(host plant)에 붙는 위치에 따라 그 특징을 구분하기도 한다. 겨우살이와 새삼은 흡기가 줄기나 잎에 붙으므로 shoot-parasitic plant라고 하며, 흡기가 뿌리에 붙는 열당과(Orobanchaceae)의 블로초, 초종용, 야고 등은 root-parasitic plant라고 한다. 또한 광합성을 전혀 하지 않는 전기생식물(horo-parasitic plant)과 광합성을 하면서 기생하는 반기생식물(hemi-parasitic plant)로 구분하기도 한다.

부생식물(사물기생식물)의 중요성

부생식물(腐生植物, saprophyte)은 동식물의 고사체(枯死體)·배설물 또는 이것들이 분해되어 생긴 유기물을 생활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하는 식물들을 말한다. 종속영양식물이며 광합성 능력이 없는 식물적 미생물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토양의 부생식물군은 녹색식물이 매일 생산하는 유기물에 필적하는 양을 혐기적 또는 호기적으로 분해한다. 고사체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므로 자연계의 물질순환상 분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생식물들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거나 분해되어 생성된 유기물들을 흡수하여 양분을 얻게 된다. 대표적인 부생식물로는 수정난풀과 구상난풀이 있으며, 이들은 생태계에 중요한 분해자의 역할을 통해 물질순환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기생식물의 종류별 특징 비교

야고는 한라산의 역세군락 밑에서 자라는데, 9월에 연한 홍자색을 띠면서 핀다. 블로초는 백두산의 두메오리나무 군락 밑에서 자라므로 '오리나무더부살이'라고도 부르며,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두메오리나무 군락지를 확인해야 한다. 초종용은 해변가의 모래땅 사철쑥 뿌리에서 기생하고, 백양더부살이는 들판의 쑥 뿌리에 기생하므로, 먼저 이들의 숙주를 잘 확인해야 쉽게 찾을 수 있다. 개종용은 울릉도의 읍속 교목 뿌리에 기생하고, 겨우살이 종류들은 모두 높은 산 활엽 교목들의 꼭대기에서 겨울에 확인할 수 있다. 부생식물인 수정란풀, 나도수정초, 구상난풀, 무엽란, 대홍란, 천마 등은 사물기생을 하므로 뚜렷한 장소 없이 전국의 산지 여기저기에서 드물게 발견이 된다. 어느 것이든 매우 귀하며 대개는 한약재나 또는 민간에서 약으로 쓰는 것들이 많다.



▲ 내음란



▲ 무엽란



▲ 백양더부살이(몽강)



▲ 백양더부살이



▲ 블로초(잡사)



▲ 블로초



▲ 새삼



▲ 수정난풀(군란)



▲ 수정난풀(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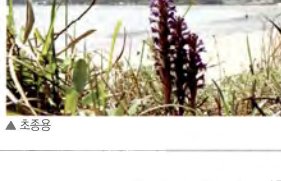
▲ 실새삼



▲ 애기무엽란



▲ 야고(군란)



▲ 야고(잡사)



▲ 천마



▲ 초종용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페퍼트리(pepper tree)



프랑스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프랑스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프랑스 니스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Ephrussi de Rothschild) 겨울정원으로 가면서



프랑스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올리브, 라벤다, 로즈마리

프랑스 니스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저택의 정원

Villa & Jardins Ephrussi de Rothschild

프랑스 니스 근교에 가볼만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저택의 정원(Villa & Jardins Ephrussi de Rothschild)이 있다. 세계의 유명 정원 목록에도 있고 니스의 관광안내소에도 카탈로그가 비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니스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81번 버스를 타고 지중해변을 따라 모나코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생 장 캅 페라(Saint-Jean-Cap-Ferrat)의 바닷가 철벽 위에 아름다운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의 저택과 정원이 나온다.

이 정원은 샤를로트 베아트리스 드 로스차일드가 만든 저택의 정원이다. 1864년 남작의 딸로 태어난 베아트리스는 19세의 나이에 부유한 러시아 출신의 파리 은행가와 결혼하였고 예술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훌륭한 작품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였다. 남편과 이혼하고 그 다음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광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에프뤼시 드 로스 차일드를 겨울 집으로 구축하고자 할 시절이었다. 베아트리스는 에프뤼시 드 로스 차일드가 건축된 1912년부터 10년 이상을 파리와 모나코, 도빌과 함께 이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1934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그녀는 죽기 1년 전에 저택을 프랑스의 아카데미 데 보자르에 남겼다. 현재 이 집에는 그



지중해변의 주택

녀가 평생을 통해 모아들이 수집품들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저택과 정원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나 여전히 아늑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베아트리스와 생 장 캅 페라

Saint-Jean-Cap-Ferrat

1906년에 생 장 캅 페라(Saint-Jean-Cap-Ferrat)에서 이 땅을 발견했을 때, 베아트리스는 이 땅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그 때만 해도 노새가 다니는 길 외는 건조지역으로 바위만 가득한 곳이었다. 1907년에 저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5년 후 완공되었다. 유명 건축가들이 건축안을 제시하였으나 까다로운 베아트리스는 대부분 거절하였고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킨 자크 마르셀 오부틴에게 건축을 맡겼다.

저택은 페티오, 폭포, 장식 연못, 화단, 그늘진 통로와 희귀한 나무로 장식된 9개의 웅장한 정원에 둘러싸여 있다. 정원을 완성하는데 1905에서 1912년까지 7년이 걸렸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 해롤드 페토(Harold Peto)와 아킬레스 듀첸(Achille Duch'ne)과 같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를 불렀다.

양방향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저택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많은 돌투성이 절벽 위에 정원을 만들기는 무척 어려웠다. 수백 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을 불러 돌을 깎아내고 흙을 가져와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1912년 저택 준공식을 할 때도 4백여명의 정원은 미완성 상태였다. 베아트리스는 집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프랑스 정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1934년 베아트리스의 사망 후 화가이며 식물에 관심이 많은 가든 디자이너 루이스 마찬드에게 저택 부지 복원을 의뢰했다. 그는 장식 연못을 만들고 테마 정원을 만들기 위해 땅을 고르기로 하였다. 3년 동안 지금은 없지만 대나무 농장을 포함한 복합적인 정원을 만들었다. 그 후 전쟁으로 인해 2년간 방치되었는데 1945년에 그가 돌아와 심하게 손상된 정원을 다시 복원하였다.



지중해변의 주택



지중해변의 주택



지중해변의 주택



스페인 정원4-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스페인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스페인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스페인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스페인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다양한 정원 디자인

베아트리스도 저택의 정원을 디자인했지만 지금은 장미 정원(Rose garden), 이국적 정원(Exotic garden), 프로방스 정원(Provencal garden), 일본 정원(Japanese garden), 암석 정원(Stone garden), 피렌체 정원(Florentine garden), 프랑스 정원(French garden), 스페인 정원(Spanish garden), 세브르 정원(Sevres garden)의 9개의 주제 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의 저택 내부와 정원에서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정원의 질벽 아래로 해변의 크고 작은 주택들의 작은 정원이 보인다. 선베드, 풀(pool), 옥상의 정원의자 등등... 길거리에는 지중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페퍼 트리(Schinus molle), 올리브 나무, 라벤다, 로즈마리, 용설란을 비롯한 각종 다육식물이 있다. 그리고 야자수와 꽃피는 노란 유레우스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서 꽃이 만발한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의 사진을 볼 수 있다.

<http://villa-ephussi.com/en/exploring-site/gardens>



스페인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스페인정원2-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딸기조아를 이용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편리한 딸기재배팩

딸기조아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딸기 재배팩

딸기조아와 함께

딸기 재배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가격 7,000원(개당)

택배비 별도

자세한 딸기 재배법은
가든인 1월호를 참고하세요

가든조아
T. 031.712-7009



봄의 정원 이끼 애벌레 제거 효과

메달리온

라이족토니아 마름병, 동전 마름병등을 예방 방지 할 수 있으며, 조류발생 초기 처리 시 조류 방제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내,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며 굴벵이, 진딧물, 각지벌레등 흡충성 해충방제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syngenta. 산펜타코리아(주)
syngenta.co.kr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상 담 전 화 1588-3889



축제고민해결!

도시조경/행사/축제에 대한 고민 CZ에 연락주세요.
단순히 제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및 축제를 준비하시는 곳에서 사전에 미리 연락주시지요.
행사 시기에 맞추어 품종선별, 디자인, 파종/식재방법, 사후 관리까지 CZ가 성공적인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대표전화 031-444-1488
팩 스 031-444-1477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쇼 룸 www.czmart.co.kr



화려함의 진수, 최상의 아름다움

독일붓꽃

독일붓꽃은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한 화려한 붓꽃입니다.

주문을 서둘러 주세요

우리꽃영농조합법인 T. 031.634.7990

정원의 나라는 어디에서 식물을 구입할까?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문화와 실내식물을 파는 꽃집은 동네마다 하나씩 찾아볼 수 있지만 정원용 식물을 사려면 조금 더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양재꽃시장(양재꽃시장)이나 남 서울 화훼단지 등이 있다. 정원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사람들은 어디에서 식물을 구입할까? 정원의 나라인 만큼 손쉽게 집 근처에서 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대형마트에서 시기별 구근식물을 구할 수 있다. 봄, 가을 시기에 맞춰 때에 맞는 구근과 1년초 씨앗 등을 판매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유명인사인 대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를 모델로 하는 채소 씨앗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친근하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씨앗, 구근류들을 포함한 모든 정원용품은 우리나라 대형 체인 마트적인 홈베이스(Homebase)라는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곳은 냉정히 말하면 가든센터는 아니고 집을 고치고 관리하는 제품을 총체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정원용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관리하고 원하는 식물을 구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원예상도, 비료, 관수용품, 정원 장식품, 각종 정원 도구, 제초제, 화분 및 각종 일년생, 다년생 초화류, 관목, 나무도 구입 가능하고 심지어 정원창고를 주문 제작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가든센터는 가든센터 그룹이 관리하는 가드닝클럽(Gardening Club)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가든센터를 알려주고 가든센터의 간략한 특징도 알려준다.

예를 들면, 가든센터 내에 카페와 식당이 있고, 애완견을 데려올 수 있다던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오픈 시간은 몇 시까지더라는 정보가 있다. 가든센터에서 식물을 구입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마트에서 상품 구매해서 카트에 넣는 것과 같다.

식물을 담을 수 있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원하는 식물을 카트에 담아 구입한다.

식물은 일년생, 다년생, 상록수, 관목, 과실수 등으로 구분이 잘 되어있고 초화류는 알파벳순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식물의 생육 특징 별로 알파인 식물, 반그늘 식물, 양지 식물 등으로 나뉘어 있어 식물 특징을 모르는 사람도 그 구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식물은 학명으로 관리되고 있다. 어느 가든센터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정확한 품종이 구입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목 류는 관수시스템이 완비된 화분에서 길러져 판매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수목판매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든센터뿐 아니라 품종 몇 가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플랜트 넘써리(Plants Nursery)가 있다. 내가 방문한 곳은 3대째 수국, 만병초, 동백만을 키우는 곳이었다. 모든 수목은 역시 화분에서 기르고, 반그늘 특성을 좋아하는 식물에 대해 생육 조건을 맞춰주는 천막을 달았다. 모든 품종은 학명으로 관리되고 세가지 품종만 전문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흔하지 않는 희귀 품종을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정원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을 잘 이어가려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원하는 정원식물 및 정원용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과 가든센터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한번 더 들러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또 판매로 이어질 것이다. 잘 정돈된 가든센터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원분야의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노래한 윤선도의 '세연정(洗然亭)'

글/사진 김 홍 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궁궐김라잡이
<http://blog.naver.com/hongdairy>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에 소개하는 전통정원

겨울잠에 들었던 벌레들이 깨어나고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약화되면서 봄으로 향하는 경칩인 3월이다. 옛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경칩이 지나면 왕이 농사를 본(시범)을 보이는 적전(籍田을 선농제(先農祭)와 함께 행하도록 했으며, 경칩 이후에는 갓 나온 벌레 또는 자라는 풀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불을 놓지 말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만물이 생동하고 봄의 기운이 일어나는 3월에 소개하는 정원은 소쇄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정원이다. 전라남도 보길도에 위치한 세연정이라는 곳이다.

2015년 1월 '정원을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 기호학'을 출발하여 2월 담양 소쇄원, 그리고 3월 해남 보길도 세연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든인 매거진에 전통정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원을 만들게 된 작정자(作者)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공간과 정원을 만들고 향유했던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정원 공간 속에 심겨진 나무와 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세연정에 이어서 경북 영양 서석지 정원까지 소개하고 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별서정원에서 나타나는 나무와 꽃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오늘날 정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보길도 예술리 해안숲 / 해남과 보길도를 오가는 정보고 선



보길도 세연정은 어떤 곳인가?

땅끝 마을로 알려진 해남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소요하면 보길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연정은 보길도에 있는 전통정원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항리에 위치하며,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지내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강화도로 향하던 중 임금님이 청나라 군대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내려가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보길도를 발견하고 이곳의

경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기거할 공간과 정원을 꾸며 정착하게 되었다. 보길도에서 부용동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정자를 세우고 옆에는 네모난 못을 파서 정원을 조영했다. 그리고 흘러가는 자연계류에 네모난 판모양의 돌을 세워 독을 만들어 다양한 수경관(水景觀)을 연출한 곳이 세연정이다.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내 벗이 몇 인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와 같은 시 구절을 외웠던 적 기억하는가? 처음 외워본 것은 윤선도의 '오우가' 첫 구절이고, 두 번째 외워본 것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중에서 노치는 것을 의성어로 표현한 것이다. 고산 윤선도는 이러한 시들을 보길도 세연정에서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 두 작품이다. 오우가에서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윤선도에게 변치 않고 곧은 절개를 가진 친구로 빗대어져 표현되어 있다.



판석보

판석보



동대의 쌓여진 돌



서대의 모습

세연정을 작정하게 된 고산 윤선도는 누구인가?

세연정을 조성한 고산 윤선도는 조선 중기에 호남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정치, 학문, 예술, 천문, 음악 및 풍수 등 다방면에 통달한 인물이었다. 의롭지 못한 일에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 성격으로 당쟁과 정치적으로 인한 문제로 세차례 걸쳐 십 수년간 유배생활과 은둔생활을 하던 지냈고, 국문학적으로 의미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진 작품이 오우가와 어부사시사이다.



고산 윤선도



세연정 소나무



세연정 대나무

세연정을 작정하게 된 고산 윤선도는 누구인가?

세연정이 위치한 보길도는 해안형 기후로 인해 다양한 식생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 보길도에는 소나무, 동백나무, 석류나무, 유자나무 등이 있어 식생의 푸르름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고산 윤선도가 조경과 풍경을 자세히 기록한 '보길도지'에는 단풍나무, 잣나무, 삼나무, 상수리나무, 대나무, 차나무, 복숭아, 오얏나무가 나타나고 있다.

1. 세연정 입구의 대나무숲

담양 소쇄원과 유사하게 자연계류를 따라 세연정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에 이른 계류에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대나무가 군식(群植)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석보

우리나라 전통정원 유적 중에서 돌로 만들어진 유일한 석조보(石造濠)로 일명 '굴뚝다리'라 부르며, 세연지의 저수를 위해 만들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돌다리가 되고 장마철이나 우기에는 자연계류의 수량이 늘어나 폭포를 이루게 하면서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판석보는 양쪽에 화강석으로 된 판석을 견고하게 세운 뒤 그 사이에 강회를 채우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 위에 화강석 판석으로 뚜껑돌을 덮었다.

3. 동대와 서대

동대는 세연정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판석보 옆에 위치해 있고, 그 규모는 가로는 6.7m와 세로 7.5m의 장방형으로, 높이는 약 1.5m이며 자연석으로 쌓아 올려져 있다. 어부사시사가 불러 지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 군무를 즐겼던 곳이다. 그리고 동대 옆에 있는 서대는 현재는 나선형의 축단으로 쌓여진 3단이 남아 있으며, 그 규모는 축단의 한 변이 7.5m정도의 정방형이며, 그 높이는 2.2m에 이릅니다. 동대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곳은 동대에서 행했던 군무 행위를 했던 곳으로 춤을 추며 돌던 정상에 오르도록 나선형 계단을 이루고 있다.

4. 세연정

세연정은 자연계류를 가두어 만든 못과 네모난 형태의 인공 연못을 만든 방지(方池)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에다 지붕은 팔작지붕을 가진 이 건물은 사방의 경관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였고 지붕 아래 사방으로 편액을 달아서 각기 다른 이름을 써놓았다. 동쪽에는 호광루(呼光樓), 서쪽에는 동하각(同何閣), 남쪽에는 낙기란(樂机欄), 그리고 중앙에는 세연정(洗然亭)이라는 글씨의 편액이 있다.



세연정 편액



계담과 칠암이 놓여져 있는 경관

5. 방지와 방도(方池, 方島)

세연정 한켠에는 네모난 모양의 큰 인공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중앙에는 네모난 섬을 두고 그 곳에 소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정원에서 이렇게 네모난 섬에 네모난 섬을 두고 나무를 심어둔 사례는 경복궁 경회루, 강릉의 선지교에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방지와 방도

6. 계담

세연정 한켠에 흘러가는 자연계류를 판석보로 만들어 물을 가두어 둔 계담에는 일곱 개의 큰 돌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돌들에도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혹약암'은 칠암 중 하나로 중국의 역경(易經)이라는 문헌에 '혹약재연'이라는 말에서 가져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뜻은 마치 힘차게 뛰어갈 것만 같은 큰 황소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



혹약암

맺음말

지금껏 남도의 아름다운 섬, 보길도에 조선 중기의 고산 윤선도가 남겨 놓은 전통 별서정원인 세연정을 살펴보았다. 보길도에는 세연정 뿐 아니라 낙서재, 동천석실, 곡수당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함께 남겨져 있지만 원형이 너무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 문화재수리 복원사업으로 인해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전통정원 답사를 가보면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꽃이 활착되어 있지 못한 모습이 여럿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선조들은 정원을 조성하고 활용할 때 인문학적인 유산인 시나 글을 함께 남겨놓아 그 원형을 복원하고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전통정원을 복원할 때 단순히 정원 공간의 물리적 복원과 함께 정원 문화의 원형을 찾아 정원을 찾은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인문학적 유산에 대한 것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선조들이 정원을 조성하고 향유하고 즐기던 문화의 계승이 제대로 이어져 못하다 보니 도시에서 주거환경에 조성된 둘러보면 정원을 찾아보기 힘들고, 막상 정원을 조성하고 꾸미고 나갈 때 이쁘게만 꾸미고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정원을 답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제가 소쇄원과 세연정을 소개하면서 인물과 시(詩, poem)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들도 이렇게 정원 공간을 조성해 나갈 때 꽃과 나무에만 의존하는 하는 정원 디자인에서 정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이나 컨셉을 명확하게 하여 정원의 공간과 의미가 일치되도록 하는 문화를 찾아야 앞으로 정원문화가 부흥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양평, 옛 것이 머무는 정원 김복기, 김귀숙 부부 정원사

글 사진 우정아

동경의 정원에서 만들고 배워가는 정원

오래 전부터 전원생활을 동경하던 주인공 부부는 우연한 기회로 오게 된 이 곳에 반해서 2012년 터를 잡고 집과 함께 150여 평 (500m²)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산의 기운과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라 원하던 정원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원에는 소나무가 주가 되고, 단풍나무, 향나무, 배롱나무, 보리수, 홍매화 등의 목본류와 작약, 금낭화, 돌단풍, 매발톱, 범부채, 수선화, 나리류, 튜립, 꽃잔디, 다알리아, 앵초 등의 초본류가 식재되어 있고, 조형물로는 주로 향아리를 활용한 것과 기와, 돌, 골동품이 조화를 이루고 고풍스러운 정원으로 테마를 정해 집 주위로 조성되어 있다.

주로 수종의 선택은 먼저 터를 잡은 이웃들의 조언을 수렴하였고, 산 중턱이라는 점과 이 곳의 기후가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점을 참고하였다 한다. 처음 정원을 조성할 때는 마을 주민 중에 조경전문가가 있어서 그 분과 함께 조성하였고, 현재는 조그만 실패들을 스승 삼아 매년 조금씩 배워가면서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서투른 정원사이지만,
배워나가는 재미가 있고, 하나를 주면 둘을
선물해 주는 정원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늘 조그만 것에서 시작되고,
늘 옆에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라는 공동된 관심사가 맺게 해준
인연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옛것과 함께하는 한국적 정원

이 정원의 특징은 주로 옛 물건들을 이용한 점이 돋보이는데,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 한 것이라 한다. 먼저 터를 잡은 이들의 정원이 한국적인 정원이라 마을의 전경이 일관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해 꾸몄다고 한다. 특히 정화조 환기구 부분과 뚜껑 부분을 향아리와 돌로 디자인해 놓은 것은 일품이다.



공동 구매를 통한 나눔의 정

이 마을에서는 식물을 의논하여 매년 공동 구매를 통해서 길가, 마을 초입과 함께 각자의 집을 꾸미고, 품앗이를 통해 서로의 정원의 일을 나눔으로 정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정원의 품앗이로 하나된 마을에 지금은 고추장, 된장, 효소도 서로의 도움으로 담그고 있다고 하니, 전원 생활을 재대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는 정원관리

정원 관리는 일이라 생각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정원을 산책하면서 보이는 잡초를 제거하고, 양평 지역이 농약을 쓰지 않는 청정지역이라 일반적인 방제가 어려워 식재 시에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선택했다고 한다.

비료는 일반적인 비료를 흙과 섞어 사용하며, 비료의 비율은 10%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식물에게 이롭다고 한다.

요즘은 식물의 번식에도 관심이 생겨서 정지, 전정하고 버려지는 가지를 정원 곳곳에 꽂아 보곤 하는데, 새로운 잎이 날 때면 자식같이 귀한 생각이 들어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고, 작년에는 양평 장에서 연근을 구입해서 호시나 하는 마을로 물속에 넣고 키웠는데 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생명의 신비함을 제대로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협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김성숙 가드너의

뉴욕 속 정원문화 엿보기

가드닝의 기쁨을 두배로...

성격도 종류도 각양각색인 우수 개인정원들과의 만남: 정원 오픈데이
당신을 오늘 아주 특별한 나만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미국의 개인정원 탐방프로그램 Open Days The Garden Conservancy



뉴욕식물원의 정원사, 원예교육가로 활동 중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재미교포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럼 정원을 가꿔라! 더욱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럼 잘 가꾸진 정원으로 이웃을 초대하라!

뉴욕식물원에서 정원사로 활동 중인 필자의 행복론이다. 사회가 현대화 되어갈 수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을 품는다. 이를 반영하듯 귀농*귀촌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맞물린 전원생활을 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현상은 그 만큼 자기만의 개성있는 정원을 만들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음을 뜻한다. 흙과 식물을 매인지며 자연과 소통하는 만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취미생활. 바로 정원가꾸기다. 봄에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하고 씨앗을 사서 땅에 뿌린다. 예쁜 꽃과 나무를 사서 물도 준다. 정원에서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어가며 가꾸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소박한 만족감과 충분한 기쁨을 느낀다. 내가

가드닝의 기쁨을 두배로...
성격도 종류도 각양각색인 우수 개인정원들과의 만남
정원 오픈데이
당신을 오늘 아주 특별한
나만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정원가꾸기를 취미삼아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해보라. 그 행복은 배가 될 것이다. 나들이 삼아 이웃의 아주 특별한 정원을 둘러 보면서 영감을 얻고 그들과 가드닝의 열정을 공유하고 정원가꾸기 팁을 배워올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펍적이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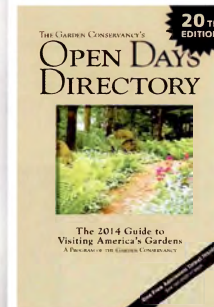
정원오픈데이

미국의 정원보전단체는 1989년 설립된 이래 미국내 100 곳 이상의 파트너 정원을 도우며, 전통 정원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정원이 정원을 돕는다"라는 철학으로 정원보전 주말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영중이다. 정원보전단체의 목적은 파트너 정원이 독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그 후 정원으로 홀로 서게 된 정원이 도움이 필요할때 지원역할로서 돕는다. 정원오픈데이는 올해로 25년된 정원보전단체의 가든투어프로그램이다. 매년 정원 주소를 책자를 출간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정원 오픈데이를 주최하는 정원의 이름, 장소,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정원오픈데이 참가 절차

1. 각 지역 대표 (오픈데이 자원봉사자)가 추천하거나 개인이 직접 지원가능하다.
 2. 최소 10장의 개인정원 사진을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심사위원들이 정원 선발기준에 의거해 정원을 선정한다.
- 정원 선발 기준
- a. 동양미와 조화미가 있는 디자인인가?
 - b. 독특한 조경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인가?
 - c. 침구위의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인가?
 - d. 효율성높고 혁신적인 정원부지(또는 식재기법)를 사용한 디자인인가?
 - e. 흥미롭고 특이한 식물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인가?
 - f. 조경미는 근사식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 g. 참신한 혼재식재 또는 색상과 질감을 돋보이게하는 식재방법을 살린 정원인가?
 - h. 방문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교육적이며, 계몽시찰수 있는 정원인가?
 - i. 창생태적/친환경적인 디자인과 함께 친환경적 가드닝을 해오는 정원인가?



정원오픈데이 - 개인정원 방문시 지켜야 할 에티켓

1. 시물을 함부로 꺾거나 뽑지 않기
2. 쓰레기 버리지 않기
3. 지렁이 길로만 다니기
4. 이름 팻말 따르기
5. 정원주인의 사생활 존중하기
6. 애완동물 출입금지
7. 아이 동반시 반드시 감독하고 주시하기
8. 남을 배려해 주차하기
9. 정원주인의 사진촬영허가받고 사진찍기
10. 카메라 삼각대 사용금지
11. 집안 화장실 사용 불가능하므로 이곳정원 방문 전에 염두해 두기

정원 오픈데이는 정원주인의 배려로 귀한 정원을 개방하며,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 아니다. (참고로 정원오픈데이에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입장료는 일반적으로 7월이지만 멤버가 되면 5달러로 입장된다.) 나만의 비밀의 정원을 이웃과 나누며,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길 원할 뿐이다. 정원주인의 사생활 보호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정원오픈데이는 때는 시간에 맞춰 가는게 중요하고 예의를 지키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뉴욕 속 이웃정원 탐방 에세이 '아주 특별한 부부의 정원으로 초대받다.'

뉴욕의 여름 어느 한가한 오후, 바깥에서 남자가 가드닝을 오손도손하고 있는 경우, 심중팔구 부부일 확률이 높다. 이야기는 이렇다. 원래는 아내 혼자 정원일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무거운 화분을 들거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때 마다 남편을 찾아 도움을 구했고, 남편 또한 점점 아내를 도와주면서 가드닝을 하나씩 익혀나가게 되었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부부의 정을 돈독히 쌓아 주는 징검다리같은 존재로서 다정한 부부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드닝으로 더욱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다정한 뉴욕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년 전 가을



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가한 토요일 오후에 뉴욕식물원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친구 버니와 집 근처의 커뮤니티 가든을 둘러보고 있을때, 친구가 잠깐 기막힌 생각이라도 난듯 머리를 탁 치며 씨익이 웃는다. “성숙아. 이 곳에서 차로5분 거리에 뉴욕식물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일하는 루이즈의 집이 있는데, 그 곳 정원이 말도 못하게 예뻐. 그곳을 구경해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해 물어 볼게.” 너무 갑자기 그녀에게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약간 주춤하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버니가 한마디 더 붙인다. “걱정마. 루이즈와 나는 친분이 두텁거든. 네가 뉴욕식물원의 정원사라고 하면 그녀는 기뻐서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할걸.” 그였다. 어딜가건 뉴욕식물원의 정원사로 근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내게 다가와 가드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걸 좋아한다. 뉴욕에서 가드닝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취미생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 일수 도 있겠다. 일상천리로 일을 진행한 친구는 “예스”를 연발하며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였다. 그러곤 한마디를 덧붙인다. “거기 가면 네가 반할거야.” 정원투어를 좋아하는 나는 ‘이게 웬 떡이냐’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정원사에게 아름답고 특색있는 정원을 보러간다는 것은 아마도 어린이가 장남감 가게로 달려갈때의 기분과 흡사하리라.

몇분후 도착한 그곳에서 정원가꾸기에 종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엘리엇과 루이즈를 만났다. 둘다 가드닝을 하다 한박웃음을 띄며 우리를 맞이해 왔다. 조용한 목소리에 신나는 김 뿜신 풍기는 엘리엇과 가드닝에 있어서 누구보다 자기주장이 강한 하이든의 밝은 미소를 짓는 루이즈를 보면서 그들의 성격이 상이하게 다름을 알수 있었다. 그들의 다른 성격은 그들의 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집을 둘러싼 근처의 모든 정원은 양자식물로 아내 루이즈가 디자인하고 가꾸는 영역이었고, 집 뒷쪽으로 여러계단을 밟고 내려가면 색다른 느낌의 음자성 식물들로만 모인 ‘힐링정원’을 볼수 있었다. 너무 상반된느낌의 디자인이었다. 특히 힐링정원에 들어섰을때 너무 고요해서 내가 산속의 한 중턱에 서있는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돌계단, 돌 비석, 정자나무, 돌 벤치 등이었다. 엘리엇은 자기가 만든 정원이라며 이곳 저곳을 보여주며 정원의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1937년 이곳에 기거하기 마지막으로 지나갔고 그 후를 바라봤어요. 부모님이 전하 여할때 이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때까지 이곳에서 지냈죠. 그리고 1991년에 아내, 첫째남매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나 뉴욕부터 귀향했어요. 정원을 포함한 전전대 미션이 1 에이커(약22445평)이예요.”

엘리엇과 루이즈가 가든투어를 마치고 집안으로 들어오른다. 그런작업실을 포함한 집안 곳곳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엘리엇의 조각작품과 그림이 너무 정교했다. 루이즈가 직접 구운 쿠키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방금 막 만나 사이였지만 오래된 친구마냥 스스럼없이 이야기가 오갔다. 물론 가드닝이 주 화제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엇과 루이즈에 대해 더욱 더 많이 알수 있었다. 엘리엇은 유명한 조각가로서 책을 3권이 잡필한 작가이기도 했다.

한편은 2013년도에 [미술가]를 위한 동물해부학- 엘리엇 골드핑거 제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한국에 출간되었다. 루이즈는 브로드웨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가수였다.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오페라의 유령]과 [나인]을 들 수 있다. 엘리엇과 루이즈의 정원을 둘러보며 ‘누군든지 가드닝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프로 정원사급의 정원사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년이상 뉴욕식물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가드닝을 익힌 루이즈, 옆에서 아내를 조금씩 거들다가 어느새 5년째 베테랑 정원사가 되어버린 엘리엇. 그들의 인연은 내게 크나큰 영감이었다. 그후 엘리엇과 루이즈는 커뮤니티 가든에서 텃밭을 가꾸는 내 이웃이 되었고, 커뮤니티 가든 자원봉사자로서 가드닝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



김성숙 가드너의 서면 인터뷰- Eliot Goldfinger & Louise Edeiken

작년에 정원오픈데이를 주최했던 엘리엇과 루이즈를 며칠전 서면 인터뷰를 통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았다.

Q1: 당신의 정원을 어떤 연유로 개발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가드닝이라는 공동 관심의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소통을 좋아하며, 조각가로서 제 작품의 정원에 전신을 들입니다. 저는 가수로 대중 앞에서 서서 공연하는 것을 좋아하죠. 저와는 정원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커다란 만족감을 느낍니다.

Q2: 정원 오픈데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되셨나요?

정원사 친구들 중 한명이 정원 오픈데이를 하는 정원으로 저희를 초대했어요. 식물원, 수목원 공원 같은 공공정원들과 친구들의 정원을 방문했던게 다 였던 시절에 잘 가꿔진 멋진 개인정원을 구경하게 된답니다. 정원 오픈데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개인정원들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고품격 개인 정원을 대했는데,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자들을 위해 만든 저희들만의 정원이라 이렇게 권위있는 정원 오픈데이 투어에 포함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Q3: 작년 정원 오픈데이가 처음이셨나요?

아니요. 2013년에 처음으로 오픈데이에 참가하였습니다.

Q4: 어떠셨나요? 2년 연속 정원오픈데이에 참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저희만의 정원을 방문객들과 공유하는것을 항상 즐기는 편입니다. 이유인즉, 정원보전단체의 오픈데이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데 전문가 급의 자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들은 저희가 정성들여 가꾼 정원을 감사해 할 줄입니다. 한가지 스트레스 받는 사항이라면, 혹시나 저희 정원 오픈데이에 날씨가 안좋으면 어쩌나 걱정했답니다. 저희 오픈데이 투어 날짜, 일주일 전부터 기상예보 채널을 주시했어요. 2013년에는 너무 덥고 다습해하다가 나중에선 비까지 내리는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Q5: 방문객들이 몇명 왔나요?

정원오픈데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진행되었는데요. 처음 오픈데이에 참가했을때 당시100 명 이상이 왔어요. 작년에는 두배가 넘는 230명이 방문했답니다.

Q6: 흥미있는 정원사들을 많이 만나셨나요?

저희는 저희만의 정원을 방문객들과 공유하는것을 항상 즐기는 편입니다. 이유인즉, 정원보전단체의 오픈데이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데 전문가 급의 자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들은 저희가 정성들여 가꾼 정원을 감사해 할 줄입니다. 한가지 스트레스 받는 사항이라면, 혹시나 저희 정원 오픈데이에 날씨가 안좋으면 어쩌나 걱정했답니다. 저희 오픈데이 투어 날짜, 일주일 전부터 기상예보 채널을 주시했어요. 2013년에는 너무 덥고 다습해하다가 나중에선 비까지 내리는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Q7: 최종 정원설치 마무리작업은 얼마나 걸렸나요?

완벽히 완성된적이 없어요. 방문객들이 일어닥치기 전까지 정원일을 계속합니다. 물론, 가드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조별기, 시드 꽃 따기, 지주대세우기 같은 경우는 끝이 안보여요. 정원이 크다보니 일반적으로 열망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는 가을에 나무잎을 모아 기계에 넣고 작게 잘라요. 그런 다음, 그 고운 잎들을 화단에 깔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계절에는 그 잎들은 거름으로 변해 식물들의 자양분이 된답니다. 일식아조의 효과인 셈이죠.

알라벳: 저와 성인이 한계를 관할하면서 관할이 식물원 들어선 당시에.
루이즈: 저는 저희들 한가하게 지내는 데에 식물원 정원을 계속해서 '정원화'하고 할수 있었어요.

Q8: 이번 년도에도 정원 오픈데이에 참가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번년도에는 저희가 몇몇 정원프로젝트(새로 심은 관목올라타 돌보기, 돌 길 완성하기 등)를 마무리지를 예정이라 정원 오픈데이는 설거지 합니다.

Q9: 정원사로서는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장 좋아하는 식물 이름 하나만 대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알라벳: Spigelia marilandica (Indian Pink)

루이즈: Cynara cardunculus (cardoon)

Q10: 늦봄에서 초가를 사이에 몇 시간이나 가드닝을 하는데 보내시나요?

알라벳: 하루에 세 대서정을 가드닝하는데 반합니다.
루이즈: 봄철 정원설치에서부터 가을, 겨울까지, 식물원, 그리고 정원화할 때 까지 많은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요. 이 작업들은 다 마치고 나면 일주일도 쉬지않고 가드닝을 합니다. 아마도 식물들을 따라다니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지치지않고 지냈어. 몇몇몇 지만 일한 생 화를 보면서 할게요.

Q11: 정원사일때와 조각가일때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라벳: 정원사일때와 조각가일때 모두, 제 관심을 화제하고 대외적으로 씁니다. 조각가일때는 조각가가 만든것을 통해서, 가드닝은 정원사와 자연의 협동작업으로. 이론적인 대외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원이나 식물들을 잘 이해해야 해요. 수려하고 크롭 리전은 대외인 듯하지만, 가드닝의 좋은 점이라면 정원이나 한가 모든 식물들의 일과도 있다는 점에요. 조각품을 만들때는 조각가가 화제에서 열까지 모두 손을 대서 완성하지만 정원은 그 정원을 가꾸는 자연의 개입으로 화제를 생성하는. 어떤 정원을 나무가 화제를 일으키며 자연은 정원을, 이같은 정원이 정원의 일과를 화제화 화제를 할 나무정원도, 정원은 열정적이고 항상 진화하며, 식물들이 자연에서 정원을 처리하는 계절에 따라 정원의 모습도 변하고요. 작품은 조각가가 작품들을 좋은 순간, 그림적인 그림과 대를 만지는데, 조각가들과 가드닝을 할때 모두 화제를 잡다는 의미에서 정원은 만능을 느낄수있어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즐기는 편이에요. 외계 분위기와 가드닝의 풍경을 비교한다면 제 자신의 정원에서, 둘다 창의적인 활동으로 제각각 큰 의미를 줍니다.

필자는 정원오픈데이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조경회사에 취직하여 만난 정원디자이너이자 가드너인 직장동료 케빈은 정원오픈데이에 매니아였다. 주말마다 집 근처 정원일터 혹은 3-4시간 차를 타고 가서 정원 오픈데이에 다녀오곤 했다. 덕분에 특이한 정원을 찾아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는 개인 정원이라던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조경가 수잔의 정원이었다. 나무기둥과 하얀 벽면의 조화가 돋보이는 영국식 투터 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만병초 원이 있었다. 만병초의 크기로 바서는는 40-50년는 속이 되어 보였다. 내 키보다 훨씬커서 그 곳을 걸어갈때 미로에서 걸었다는 기분이었다. 잎 사이 사이로 비치는 햇빛과 그 목... 아름다웠다. 만병초원 아래로 다양한 종류의비비추로 식재된 비비추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낮익은 조각품을 만났다. 제주도 하루방의 느낌과 비슷했다. 주위 깊게 살펴보면 중 수작이 약간 흥분하며 한국 제주도에서 사온거라고 자랑했다. 그 작품들과 비비추가 너무나 잘 어울렸다. 넓은 잔디밭을 지나 테라스 정원으로 향했고 그 곳의 의자에 앉아 푸르른 바다와 보트를 내려보았다. 옆에는 조그만한 조경소재의 두꺼비가 물을 내뿜고 있었다. 눈을 돌리니 텃밭정원도 보인다. 역시 조경가는 다르다. 곳곳에 보인듯 말듯 조경소재들로 재미를 주는 너무나 완벽한 정원으로 기억한다. 정원보전 단체는 정원 오픈데이를 통해 모든 수임으로 파트너 정원들을 돕고 있다. “정원이 정원을 돕는다라는 말이 인상에 남는다. 한 개인이 정원을 잘 가꾸 높은 정원을 일년에 한번 오픈하면서 정원이 꾸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정원 오픈데이를 통하여 누군가는 영감을 줄 것있고 누군가는 영감을 받을것이다.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고 돕는 기쁨 또한 배가 될것이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한국에 정착되어 정원이 정원을 도울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뉴질랜드 트레킹 속에서 보는 자연공원



Tracking course

1. Abel Tasman coast track
2. Milford Track
3. Rakiura Track
4. Routeburn Track
5. Kepler Track



글/사진 정수진대표

정수조경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NEWZELAND TRACKING COURSE

정원 조경사에게 일 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추위가 가장 심한 1월이다. 조경디자인 작업을 하며 2012 과 15년 1월에 두 차례에 각 약2주간 뉴질랜드 남섬을 트레킹을 위해 다녀왔으나 남섬이 북섬보다 자연이 더 아름답고 기후도 남섬이 여름에(우리나라 반대 계절) 남극 쪽으로 가까워 지형에 따라 5-20도로 걷기 좋은 기후 조건이다.

뉴질랜드 트레킹에 지난번보다 더 매력되고 세계 많은 곳을 다녔지만 한국인에게는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했다. 약 11시간이라는 긴 비행을 해야 하지만 시차 적응이 필요 없고(4시간 시차), 물가도 한국보다 비싸지 않고, 기후, 교통 인프라, 등산객을 위한 모든 시설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남섬의 5대 트레킹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을 가지고 있는 Milford, 세계 10대 트레킹에 꼽히는 Routeburn track, Kepler Track, Abel Tasman Coastal Track과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스튜어트 섬에 있는 Rakiura Track이다. 각 평균 40-50 키로 되는데 두 회에 걸쳐 안 사람과 완주하며 그 일정과 자연속에서 만나는 정원의 세계를 독자분과 같이 다녀 볼 가 한다. 각 트랙마다 3-5일 걸리는데 한번 산속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식량과 텐트, HUT에 자는 장비를 구비해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약 15킬로의 짐을 지고 걷는 일반인은 그리 쉽지 않은 환경이다.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그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1. Abel Tasman Coast Track

Christchurch에서 자동차로 북상단으로 4시간 이동한 Picton에서 배를 타고 트랙킹 첫 기점에 내려준다. 약 40키로 되는 길을 해변을 끼고 가끔 길에 밀물, 썰물로 인해 시차에 맞춰 종아리까지 옷을 걷어 올리고 갯벌을 건너고, 산길, 모래사장 등을 오르내리면서 3박 4일간 걸으며 에메랄드 색깔의 아름다운 바다 빛에 반하여 도취된다.



에메랄드빛

2. Milford Sound Track

가장 유명한 코스 중 하나로 남쪽 Queestown에 가야 시작이 가능하며 개인 회사의 단독 개발 후 뉴질랜드 정부의 허가권을 갖고 4박5일 일정으로 guide를 붙여서 산속에 호텔 같은 시설을 지어 단체객에게 숙식도 제공하는 아주 고급 트레킹 일정이다. 마지막 날 협곡 근처에 숙박하고 다음날 크루즈 배를 태우고 Milford Sound (빙하로 만들어진 협곡)을 태워주는 아주 멋진 관광 코스이다. Fiodland National Park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우기가 많은 지역이다. 밀림에 이끼가 가득하고 습식식물로 가득하며, 물은 지천이고 요정 속 나울법한 아름다운 폭포도 나타난다.



4. Routeburn Track 루트번 tracking course

퀸스 타운에 돌아오자 꿈에 그리던 5군데 트레킹 가장 아름다운 루트번 코스인, 세계 10대 트레킹코스 중 유명하며, 다이아몬드 웅장한 산과, 산 깊숙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175미터의 폭포, 흰색 꽃이 배경인 white garden과 산 아래 나타난 호수에 바람이 일어 잔잔한 파도와 햇빛의 조화로 만들어진 눈부신 다이아몬드 수경. 풍부한 물이 만들어진 자연 소규모, 대규모 계류, 연중 9미터 높이의 비가 오는 습지가 만들어진 희귀한 습지와 이끼들로 둘러 쌓인 신비의 장소로 만든 코스였다.

3. Rakiura Track

최 남단섬 Stewart Island, 퀸스타운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페루정배타고 한 시간으로 첫날 아침 6시반에 버스 타고 현지 도착시간이 정오가 되었다. 선착장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하고 근처에 있는 DOC에서 참자리표를 받고 길에 나섰다. 약 2시간 후 라키우라트랙 초입이 나왔다. 해변가를 끼고 도는 2박3일간 35키로 일정이다. 섬은 규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인구는 고작 380명이라 한다. 바다를 끼고 걷는 트레킹의 특징은 예상외로 내리막 오르막이 많다.



인버카길의 약 5천만년 전 멸종되어 다시 소생시키는 아름다운 원물의 단두나무

5. Kepler Track 케플러 트랙

약 60키로 구간으로 Fiodland National Park에 밀포드, 루트번과 함께 3대 트레킹 코스이며, 거의 평지 같은 길을 호수 옆으로 걷기에 아주 편안한 길이며, 전 구간은 상당한 고지에서 산 능선 길을 걷기 때문 좌우 조망이 아름다운 코스이다. 남섬에서 가장 크다는 Te Anau 호수를 주 조망으로 보면서 능선에 올라 되돌아오는데 아주 근사한 Hut도 3군데나 중간에 있어 첫 시작되는 오르막 능선을 빼고는 트레킹 길이 잘 정비된 인기 있는 곳이다.

약 2주 동안 100키로 걸으면서 몇 가지 다짐한 것은 언제나 다시 찾아 아름다운 자연 속 정원공부를 계속하며 세계유명 정원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장소로 뉴질랜드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천국이며, 퀸스타운 같이 아름다운 양중맞은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싶다는 생각과 아내와 함께 이번 어려운 트레킹에 텐트와 hut 생활까지 하면서 동행해준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Newzeland
South Island. Plants Variety



Hebe cupressoides



black-beech



Celmisia discolor



Helichrysum bellidioides



Clematis-paniculata-Ranunculaceae-Family



Mount-Cook-Ranunculus-lyallii



Myosotidium hortensia



Lepidium_oleraceum_Cooks_scurvy_gras



Hebe_elliplica_Kakamu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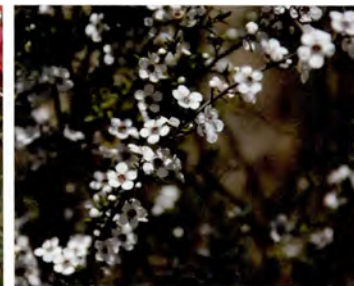
rata-tree-in-flower



pilpotsummary



Clianthus_puniceus_Kaka_beak_tree



Leptospermum-scoparium-flowers-Myrtaceae-Family



fern-frond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 육성한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는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정원과 유럽, 호
주, 미국의 정원까지 우리꽃연구소란
개발자의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우리드림 옐로우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نبا야 한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벽화수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커면 야 좋지만 벽면에 메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نبا야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 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공급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번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수직정원 벽화수
벽화수주식회사
 전화. 031.634.7990



수직정원 벽화수의 겨울나기 기술력만?

식물생육에 최적화된 토양의 물리력(특허 제 10-0807285호)
 벽화수는 펄라이트, 코코피트, 제올라이트, 피트모스 등 유, 무기물을 섞지 않는 섬유가 바인더 역할을 하고 100℃ 이상의 열로써 융착하여 완벽하게 소독이 되어 출하, 시공된다. 특히 식물의 뿌리가 가장 살기 좋다는 토양입자 50%, 공기층 25%, 수분층 25%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겨울에도 관수가 가능한 시스템(실용신안 20-2010-0003102번)

벽화수의 관수기술에는 특별함이 있다. 일반적인 관수시스템은 주로 파이프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방식을 쓰게 된다. 매우 좋은 물 공급 시스템인 것은 맞다. 그러나 경사가 진 곳에서는 물이 골고루 떨어지지 않고 호스라인을 따라 흘러 어느 특정한 부위에는 물이 과습하여 생육이 어렵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건조에 의해 죽게 되는 원인이 있다.

벽화수의 관수시스템은 방근 부직포가 관을 감싸고 있어 물이 한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미어 나오므로 토양에 골고루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겨울관수에 있어서도 관 안의 물이 부직포와 스펀지와 같은 벽화수에 의해 모두 방출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그 해답이다.

식물연구 전문회사의 기술력

벽화수를 개발한 우리꽃연구소는 이미 국내 식물 전문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식물의 생리와 생태적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야생화를 개발, 실질적 세계로 열매를 받고 있는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인 기술력과는 식물의 입장에서 차별된다. 식물이 행복한 기술력, 플러그(어린 묘)를 꽂기만 하면 식재가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과 식물이 필요할 때 공급되는 물과 양분 충분한 햇빛을 받아 도시의 빌딩숲을 그린 숲으로 만들면 사람이 행복해 진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력 수직정원 벽화수의 꿈이다.



정원으로의 여행



여름이면 푸르름을 보기위해, 가을이면 단풍 놀이를 즐기기 위해 산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인공적인 포장재로 둘러싸인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기 위해 등산은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위에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나지막한 산들도 많아 쉽게 접할 수 있다. 때문에 등산복이 마치 평상복인 것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만큼 등산복을 즐겨입는 곳은 없을 듯 하다. 그만큼 자연을 느끼고 싶어 하고 곁에 두고 싶은 것은 아닐까?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정원도 구경하는 방법이 있다. 정원 여행을 통해 접한 정원들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사, 정원에 들어가는 구성요소들, 소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빈 땅에 식물만 심고 가꾸는 것은 생활원에 즉 가드닝이다. 좀더 아름답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한 가든 디자인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1년 365일동안 매일 정원을 여행한다 해도 15년이상 다녀야 영국에 공식적으로 오픈 된 정원을 둘러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정원의 나라 영국의 대표적인 정원 스타일은 산책하기 좋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연출 해 놓은 자연풍경식 정원이다. 이는 18세기에 만들어 지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의 정원은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의 영향을 받은 정원과 원예활동을 워낙 좋아하는 영국사람들의 개인 정원 꾸미기로 탄생한 코티지가든 등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정원 여행 중 15세기에 서부터 지금까지의 정원을 두루두루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 우리나라 같은 산이 없는 영국에서는 도심 속에 공원이 많이 있고 집집마다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여서 그나마 자연에 대한 목마름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곳곳에 있는 관광지 역할을 하는 정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테마 여행으로서 한몫을 하고 있다.



정원여행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 할 지도 모르지만 편안하게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원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프랑스의 경우 루이 13세때 파리에 궁정 식물원을 대중에게 오픈하면서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귀족들의 개인 정원이나 사냥터를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오픈하여 구경하게 하였던 것을 계기로 정원 여행이 시작된 것을 보면 여행 중 주변의 식물원이나 수목원이 있다면 한번쯤 들러 쉬어가는 것도 정원여행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정원여행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저 편하게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아마 그 정원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디자인 한 목적 등 정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면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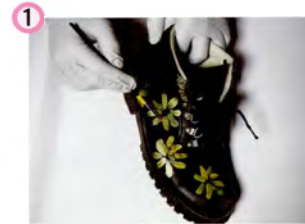
우리가 즐겨 마시는 레모네이드는 1640년 파리 식물원에서 목마른 방문객들을 위해 처음 판매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정원을 구경하는 정원투어 프로그램은 18세기 문화에 목마른 여행객들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를 부럽게 바라보던 영국도 정원여행자들을 위해 귀족들의 사유지에 있는 집이나 정원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였다. 제인 오스틴의 영화 '엠마'나 '오만과 편견'등을 보면 귀족들의 정원 모습이나 일반 신분인 사람들이 귀족의 사유지에 방문하는 모습등 그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다.



실내정원의 CRAFT

재활용 가든 - Shoes Garden

신발은 헐어서 못 신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 헐기 보다는 실증이 나서 버려지는 신발이 대부분이다. 이런 신발은 좋은 화분이 될 수 있다. 간단히 그림을 그려 넣어서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슈즈가드닝에 도전해 보자



신발에 밝은 색상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어두운 색으로 그림을 마무리 한다.



실내에 둘 경우 신발 안쪽에 비닐봉투를 넣는다.



마사토를 2cm 정도 넣어 배수층을 만들어 준다.



흙을 조금 넣어 준다.



알뿌리가 다치지 않게 수선화를 포트에서 분리한다



신발에 넣고 흙을 빈 곳이 없게 채워준다.



비닐봉투를 보이지 않게 밑에 넣는다.



Material



마사토



아크릴물감



성토



신발 1



신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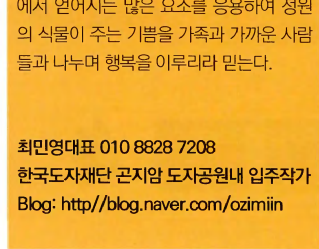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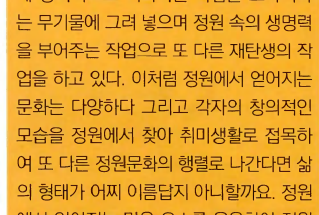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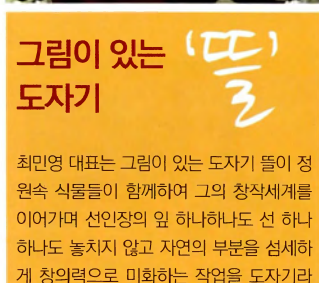


수선화



후미다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그림이 있는 도자기

최민영 대표는 그림이 있는 도자기들이 정원 속 식물들이 함께하여 그의 창작세계를 이어가며 선인장의 잎 하나하나도 선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연의 부분을 섬세하게 창의력으로 미화하는 작업을 도자기라는 무기물에 그려 넣으며 정원 속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또 다른 재탄생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원에서 얻어지는 문화는 다양하다 그리고 각자의 창의적인 모습을 정원에서 찾아 취미생활로 접목하여 또 다른 정원문화의 행렬로 나간다면 삶의 형태가 어찌 이렇듯 아니할까요. 정원에서 얻어지는 많은 요소를 응용하여 정원의 식물이 주는 기쁨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을 이루리라 믿는다.

최민영대표 010 8828 7208
한국도자재단 곤지암 도자공원내 입주작가
Blog: <http://blog.naver.com/ozimiin>

영국의 정원디자인 학교의 소개

정원의 마스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며 익히는 미래를 만들며...

조경이나 원예를 공부한 학생은 직업 군이 일정한 듯한 한국의 실정에서 가든인은 보다 폭 넓은 세상으로 꿈을 이루도록 진정한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익히는 영국의 실용적인 교육기관의 정보를 알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리포 수목원의 고 민병갑원장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며 젊은 한국의 정원사를 키우기 위해 영국의 유명한 수목원으로 단기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마도 그 시대의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동료라 여겨진다. 이제 개방된 학문의 세계는 누구에게든 열려있고 정원이나 수목원의 인턴시절을 통과하면 공부도 하여, 미래 지향적인 것과 다른 혜택은 많은 정원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도 얻을 수 있는 시장각적 정원의 학습장이 많은 나라이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삶의 시간을 보다 가치있게 연장하고픈 인간의 욕망이 정원에서 마무리하는 듯 하다. 이제 작은 땅의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정원을 꾸미고 가꾸며 가족이나 주말의 여가시간을 위해 청서적 위안의 공간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며 전문적인 정원사나 정원디자이너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공간 예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선진국형 패턴에 따라 젊은 청년들이 자연에서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을 위해 가든인이 정원관련 학교의 소개를 실기로 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 gardenin2014@daum.net TEL: 031 712 7009 고정우과장

Cannington Centre

Rodway Hill Cannington Bridgwater Somerset TA6 4PZ 01278 455464
enquiries@bridgwater.ac.uk www.bridgwater.ac.uk



Capel Manor College

Bullsmoor Lane Enfield Middlesex EN1 4RQ 08456 122122
enquiries@capel.ac.uk www.capel.ac.uk

Capel Manor College는 원고 공부를 위한 센터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 미취학생 및 성인을 위한 Full-time 코스와 낮과 밤에 공부 할 수 있는 Part-time 코스를 같이 운영 한다. 원예, 꽃꽂이, 정원디자인, RHS 인증반 및 식재설계 과정이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3년 과정인 정원 디자인으로 주 1일 교육을 받는다.



The English Gardening School

66 Royal Hospital Road London SW3 4HS 020 7352 4347 info@egs.diroon.co.uk
www.englishgardening.school.co.uk

Chelsea Physic garden에 위치해 있으며 Chelsea Physic garden에 있다. The English Gardening School은 다양한 과목이 있으며 채소재배, 식물그리기, 자판/목상 정원 디자인 등을 배울 수 있다. 교수들은 전문 정원 디자이너, 원예가, 식물 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time 전문과 과정 및 원격강의도 가능하다.



Garden Design Academy

45 rue de Varennes 36210 Chabris France 0033 254 40 15 42
info@gardendesignacademy.com
www.gardendesignacademy.com

전문 교수들의 원격 강의를 제공하며, 정원 디자인, 조경, 정원관리와 원예 등의 코스가 있다. 모든 수준의 학생을 소화할 수 있는 60가지의 코스가 있고, 아마추어 정원사부터 학사과정 까지 준비 할 수가 있다.



Garden Design School

32 Ferguson Road Devizes Wiltshire SN10 3UA 01380 728 788
enquiries@gardendesignschool.co.uk
www.gardendesignschool.co.uk

Garden Design School은 정원 디자인 전문가인 Moira Farnham과 Robin Templar Williams가 운영 하며, 원예와 조경/정원 디자인을 영국과 해외에서 가르치고 있다.



Greenwich University

Old Royal Naval College Park Row Greenwich London SE10 9LS 020 8331 8145
courseinfo@greenwich.ac.uk
www.gre.ac.uk

Greenwich University의 조경과 정원 프로그램은 학사와 석사에 준하는 코스를 제공 하며, 유럽 조경과 정원디자인, 정밀역사,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계획 및 평가의 과정이 있다.



다음 달에 계속 됩니다.

Hadlow College, Inchbald College of Garden Design, KLC School of Design, The London College of Garden Design, Merrist Wood Oxford College of Garden Design

GARDEN & BOOK



열매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저자 올프강 스테피

자연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창작물 중 하나인 열매의 자연사 탐구

이 책은 영국의 Papadakis 출판사에서 발간한 큐 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Kew) 식물도감 시리즈 중 '열매(fruit)'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이 책에는 열매의 형성과 발달, 크기, 형태, 구조, 다양성, 메커니즘, 용도와 역할에 관한 해설과 이 책의 저자이자 큐 왕립식물원의 밀레니엄 종자은행 소속인 올프강 스테피(Wolfgang Stuppy)와 시각 예술가 롬 케슬러(Rob Kessler)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 낸 다양한 열매와 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 실려 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식물이 만들어 낸 구조물과 번식의 독창성을 보여 주는 복잡한 내부 구조를 정교하게 나타내고 있다. 롬 케슬러는 때로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열매와 종자의 구조와 기능을 강조하여 흑백의 현미경 이미지에 화려한 색을 덧입힘으로써 그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큐 왕립식물원장 스티븐 호퍼(Stephen D. Hopper)는 서문에서 오늘날 전 세계가 전에 없는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탄소의 주요 소비자인 식물을 가꾸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됨에 따라 더 이상 함부로 식물을 없애지 말아야 하며, 이에 광합성의 보고인 식물을 잘 보호하고 키워 식물이 놀라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임을 알리고 있다.



저자소개

Wolfgang Stuppy 올프강 스테피

저자 올프강 스테피(Wolfgang Stuppy)는 종자형태학자. 종자비교형태학□해부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규모 국제 식물 보존 사업을 벌이는 밀레니엄 종자은행 협력 기구 센터인 런던 큐 왕립식물원의 밀레니엄 종자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열매와 종자를 수집 및 보관하는 세계적인 보존 프로젝트인 밀레니엄 종자은행은 그에게 있어 식물의 다양성 연구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 롬 케슬러

저자 롬 케슬러(Rob Kessler)는 시각 예술가.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린스 예술대학의 세라믹 예술학과 교수.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디자인과 미술, 응용미술을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1년~2004년 큐 왕립식물원의 NESTA(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연구 교수를 지냈으며, 이후 올프강 스테피 박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식물 연구를 해 오고 있다. 린대학회와 왕립예술협회 위원이며, 생물다양성의 해인 2010년에 글렌키안 과학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역자 : 김진옥

역자 김진옥(金眞玉, Kim, Jin Ohk)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예과과학부 식물계통분류학 박사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원 근무(2012년 3월~2014년 2월), 저서 『식물이 좋아하는 식물들』 다룬 세상, 2011

감수 : 이남숙

감수자 이남숙(李南淑, Lee, Nam Sook)은 식물학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식물분류학전공(이학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대학원 예과과학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 한국난협회 회장, 난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저서 『모든 들꽃은 꽃을 피운다』 중앙M&B, 1998, 『피어라 꽃피는 꽃지』, 다룬세상, 2001(환경부 추천 '우수 환경 도서상' 수상), 『세사종속사전(식물)』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난과식물도감』 이화여자출판부, 2011



한국정원디자이너협회 창립 총회 개최

'한국정원디자이너협회' 창립 총회가 지난 1월 17일 아이디얼가든(유) 사무실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협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으로 아이디얼가든(유) 임춘화 대표가 선출된데 이어, 협회 임원 7명이 확정됐다.

한국정원디자이너협회는 정원 디자이너 양성, 선진 정원 문화의 도입과 디자이너 자격 요건 검증, 디자이너 간의 홍보와 상호 교류를 통해 산업에서의 정원 디자인 부분의 서비스 역량 및 고용 창출, 정원 디자이너들의 권익과 소비자 이익 보호, 아울러 한국 정원 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정원 문화 대중화를 위해 지역 정원 문화 운동, 우수 디자인 시상, 개인 정원 공개 캠페인을 통한 나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임춘화 초대 회장은 "정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이번 한국정원디자이너협회 창립을 계기로 정원디자인 전문가로서 수준 높은 정원 디자인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선진적인 정원 문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정원디자이너들의 권익과 활동을 위한 목소리를 낼 단체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앞으로 이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아이디얼가든 디자인스쿨, 2015년 정원디자인 전문가 과정 개강

아이디얼가든(대표 임춘화, 한국정원디자이너 협회 회장)에서 운영하는 가든디자인스쿨은 200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정원디자이너 교육 기관으로, 실력 있는 정원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매년 3월에 개강하는 30주 과정의 '정원디자인 전문가 과정' 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식재 디자인 과정, '코티지 정원 디자인 과정', '내 집 정원 디자인 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30주 과정의 전문가 과정은 정원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내 집 정원을 직접 디자인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과정이다.

개인 주택 정원에서부터 연천 허브빌리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정원 등 다양한 규모의 정원을 만들면서 쌓은 디자인 및 시공 경험과 이론이 조화를 이룬 강의 내용은, 아이디얼가든만의 장점이랄 할 수 있다. 현장에 필요한 역량있는 전문가 양성을 기치로 하는 교육 이념답게, 졸업생들이 작년 제1회 코리아 가든 쇼에서 금상 및 우수상 수상,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내외 정원 공모전 5팀 당선, 2015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전 3팀 당선 등 각 분야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 강 화 영 : 24기 정원디자인 전문가 과정 (30주)

* 개 강 일 : 2015.3.7 (토), 오후 1시 ~ 4시

* 설 명 회 : 2015.2.7 (토), 오후 1시

* 수강기간 : 30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시

* 강의내용 : 정원 역사와 스타일, 정원의 장식품과 구성 요소, 디자인 브리프 제작, 부지 조사와 분석, 디자인 원칙 및 레이아웃 디자인, 도면 드로잉, 식재 스타일과 원칙, 디자인과 환경에 맞는 식물 선택, 식재 디자인 및 드로잉, 정원 시설물 디자인, 정원 디자인 프리젠테이션과 견적내기, 현장 견학 및 실습 등

* 장 소 : 아이디얼가든(유)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6 현대ESA 2차 309호 (서초역 2번 출구)

* 연 락 처 : 02-725-2737, 010-3229-2736 leesil1427@naver.com www.idealgarden.co.kr

* 강사소개 : 임춘화 (정원 디자이너, 아이디얼가든(유) 대표)

영국 리즈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와 할로가 가든의 가든디자인 과정 졸업, 2004년 아이디얼가든(유) 정원설계사무소 설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문위원 및 정원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여, 2014년 코리아가든쇼 최고작가상 수상 신은희 (정원 디자이너)

영국 그리니치대학 가든디자인 석사 과정 졸업,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 인턴 가드너, 허브빌리지 원예팀 가드너

수직 정원의 왕자 타잔

숲에서 태어난 타잔의 선물,
이제 여러분께 바칩니다.



수직정원 이제 너무 간편합니다. 타잔이 끝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수직정원

가정용 **타잔**

출시기념 특가판매

출시기념 특가

3 × 3구(400mm x 400mm)구성

홀더 9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40,000원~~ 20,000원

3 × 6구(400mm x 800mm)구성

홀더 18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70,000원~~ 35,000원

6 × 6 구(800mm x 800mm)구성

홀더 36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120,000원~~ 60,000원

위의 모든 제품은 배송비 및 부가세 별도 상품입니다.

기본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은 문의 후 추가구매

가정에서는 소량 구매 시 식물을 제외한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약 넓고 많은 수량을 할 때는 자동관수

등의 추가 선택하시면 관리에

매우 편리 합니다.

**50%
D.C**



자 준비 되었나?
슬슬~ 시작 해 볼까?

핸드라이버를 이용
박고! 박고! 박고!

준비된 타잔이 줄타기 하듯
노래를 부릅니다

아~notturna~
걸어만 주면, 끝~

타잔의 효율적인 구성

기본

- 언제 어디서나 걸어만 주면 되는 홀더
- 타잔인 노래를 부르듯 줄타기(디자인) 하는 철망 (철망을 부착할 수 있는 나사 및 토양 포함)

선 택(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사항)

- 실내 수직정원을 가능케 하는 식물, 주로 관엽식물(선택)
- 물을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수 호스(선택)
- 물을 시간에 맞게 자동 공급하는 아쿠아프로(선택)
- 실내용 물받이(선택)
- 실내용 물통(선택)
- 실내용 관수펌프(선택)
- 실내용 마감재(선택)



타잔! 밀림의 왕자!
이제 간단한 수직정원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10% ~20% OFF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1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마트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파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6개월 10%할인(108,000원)

1년 16.6% 할인(100,000원)

2년 20% 할인(96,000원)

Gardenin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명
편집인 이명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경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준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화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광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v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주)한국원예자재

2015 GARDENING
HORTICULTURE
CATALOGUE

가드닝/원예자재 카탈로그



모든 가드닝/원예자재를 한자리에

미림가든센터

2015

가드닝/원예자재 전문

미림가든센터

카탈로그 발행!

미림가든센터의 2015년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카탈로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미림가든센터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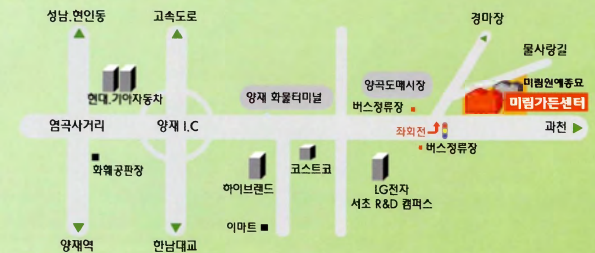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미림가든센터
e-shop 조이가든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Nice to  you!

우리씨드

정원용 고급 종자

100

선



월간가든인원에정원전문잡지



우리꽃연구소
URISEED INSTITUTE

467-87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gardenjoa.com (100선 사진 자료)